

# 호주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 호주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

2020. 9.

국방기술품질원

이 면은 공백임

이 면은 공백임

이 면은 공백임



<b>제1장 요약</b>	<b>1</b>
<b>제2장 시장 / 환경 분석</b>	<b>5</b>
제1절 일반현황	7
1. 개요	7
2. 정치·경제환경	10
3. 안보환경	11
4. 국제관계	14
제2절 획득정책 및 제도	16
1. 획득관련 법령 및 기구	16
2. 획득절차	20
3. 예산편성절차	23
제3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25
1. 군사육성정책 및 획득 중점	25
2. 주요 무기체계 획득 동향	27
3. 예산 지출 전망	30
4. 방산역량 및 정부지원정책	40
5. 수출 장애요인	45
6. 수출 유망품목	47

# Contents

<b>제3장 시장진출 전략</b>	<b>55</b>
제1절 SWOT 분석	56
1. 분석 개요	56
2. 강점(Strength)	57
3. 약점(Weaknesses)	57
4. 기회(Opportunities)	58
5. 위협(Threats)	
제2절 시장진출 전략	60
1. SO 전략(강점-기회 전략)	60
2. ST 전략(강점-위협 전략)	61
3. WO 전략(약점-기회 전략)	63
4. WT 전략(약점-위협 전략)	64
<b>제4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b>	<b>67</b>
제1절 정책제안	
1. Top-Down 방식의 중점 수출 분야 선정 및 수출 연계방안 수립	68
2. 방산수출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제 협력 업무 절차 수립	69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70
<b>부 록</b>	<b>71</b>
1. 향후 획득 예정사업	
2. 방산기업 목록	
<b>참고문헌</b>	<b>77</b>



표목차

[표 2-1] 호주 일반 현황 ..... 7

[표 2-2] 의사결정 협의체별 구성인원 ..... 18

[표 2-3] 조달규모별 최종 승인자 ..... 22

[표 2-4] 호주 국방예산 내 획득예산 및 수익지출 비중 ..... 32

[표 2-5] 호주 GDP 성장률 대 GDP내 국방지출 비교 ..... 33

[표 2-6] 호주-주요시장 국방 지출 비교 ..... 35

[표 2-7] 호주 체계별 수입 현황 ..... 47

[표 2-8] 호주 체계별 획득 계획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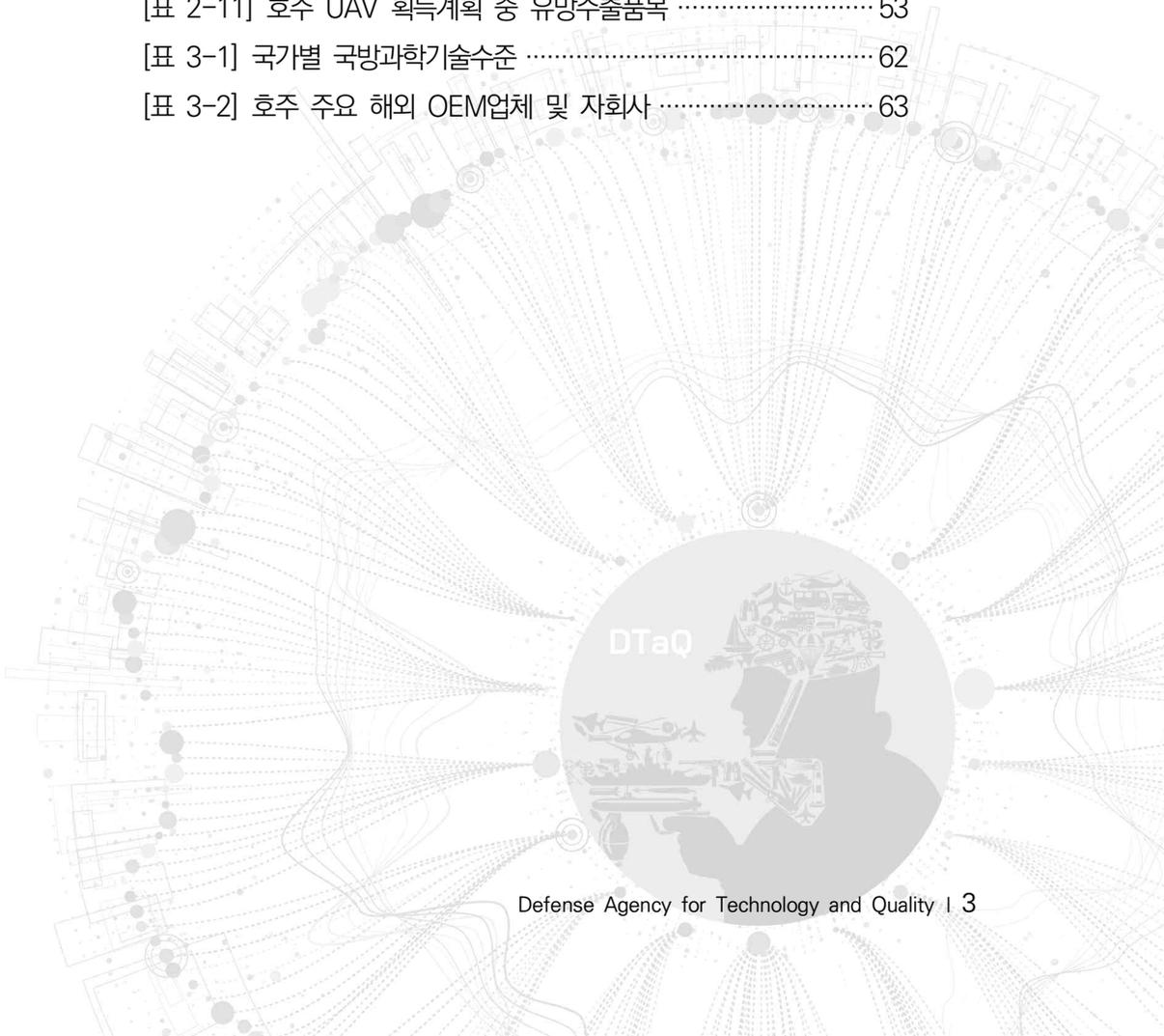
[표 2-9] 호주 정보통신분야 획득계획 중 유망수출품목 ..... 52

[표 2-10] 호주 EO/IR 획득계획 중 유망수출품목 ..... 52

[표 2-11] 호주 UAV 획득계획 중 유망수출품목 ..... 53

[표 3-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 62

[표 3-2] 호주 주요 해외 OEM업체 및 자회사 ..... 63



# Contents

## 그림목차

[그림 2-1] 호주 행정구역 구분 .....	9
[그림 2-2] 국가안보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 .....	19
[그림 2-3] 호주군 획득절차 .....	20
[그림 2-4] IPT 및 획득별 담당부서 업무 구조도 .....	21
[그림 2-5] Rheinmetall사의 Boxer 전투정찰장감차 .....	29
[그림 2-6] 군별 국방예산 .....	31
[그림 2-7] 호주 국방예산 내 획득예산 및 수익지출 비중 .....	33
[그림 2-8] 호주 GDP 성장률 대 GDP내 국방지출 비중 비교 .....	34
[그림 2-9] 호주-주요시장 국방지출 비교 .....	35
[그림 2-10] BAE Systems사의 Hunter급 호위함 .....	39
[그림 2-11]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	47
[그림 2-12] 호주 다목적 항공기 시장 규모 전망 .....	49
[그림 2-13] 호주 C4ISR 시장 시장 규모 전망 .....	50
[그림 2-14] 호주 호위함 항공기 시장 규모 전망 .....	50
[그림 3-1] 호주 방산시장 환경 SWOT 분석 .....	56
[그림 3-2]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	62

이 면은 공백임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 1 장

개 요

1

제

장

# 요 약

제 1 절 요약

---



## 제 1 절 요약

본 보고서는 호주 방위산업 시장동향에 관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호주 방산시장의 특성 및 정책 방향, 국방지출, 획득 예정 사업 등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의 수행 임무에 따라 국내 국방분야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진출 전략, 정책적 제언에 초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호주의 군사외교 정책기조와 최근 수입 동향, 향후 획득계획 등을 분석하여 유망수출 품목으로 항공기, 지상기반 C4ISR, 호위함 등을 식별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체계, EO/IR 및 무인기 분야는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로 식별하였다.

이어서 호주 방산 시장의 특성을 SWOT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으로 구분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진입 주요 전략을 수립하였다.

호주는 탄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명한 조달 및 외국 인투자 절차를 가지고 있어 매력적인 신흥 방산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장 내 경쟁강도가 강하다. 그리고 제한적인 방위산업 역량에 비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점이 진입 장애요인으로 식별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기업 인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 ②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 ③기술력 우위 분야 중심의 진출, ④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 후 서구권 국가 수출 교두보 마련, ⑤현지기업 참여를 고려한 진출 전략 수립, ⑥외교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정부 협력 채널 다각화 등 호주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과 더불어 시사점을 제시하여 내용 전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호주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 중소기업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을 고민해보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분석 내용이 우리 기업 및 유관기관의 호주 진출 전략 구상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내실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2장

시장/환경 분석

# 2

제

장

## 시장 / 환경 분석

제 1 절 일반현황

---

제 2 절 획득정책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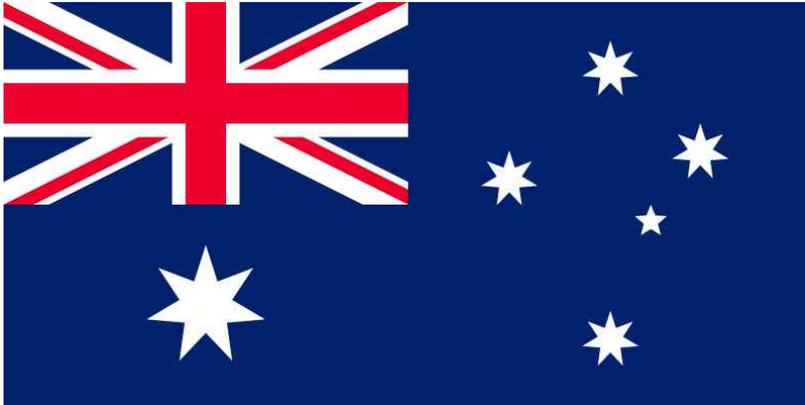
---

제 3 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

이 면은 공백임

## 제 1 절 일반현황

1. 개요<sup>1)</sup>

[표 2-1] 호주 일반 현황

구분	내용
국명/화폐	호주 연방(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 호주달러(Australian Dollar, AUD)
면적	769만km <sup>2</sup> (한반도의 35배)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36만 명)
인구	2,499만 명(2018년 호주 통계청)
언어	영어
종교	기독교(67%), 무종교(26%), 기타(7%)
인종	앵글로색슨(80%), 아시아, 원주민 및 기타(20%)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국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국가원수 총리: Scott Morrison, 제29대 총리(2018.8.취임, 2019.5.연임)
의회제도	양원제 (상원 76석, 하원 151석)
국내총생산	1조 4183억 USD(14위) / GDP 성장률 : 2.9% (2018년 기준 IMF)
해외교역	교역 : 8,540억 AUD (수출 : 4,381억 AUD, 수입 : 4,519억 AUD)
산업구조	1차산업 (농업, 광업) 및 3차 산업(금융, 서비스) 비중이 큰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

1) 호주 개황, 외교부, 2020

## 가. 국가 특징

- ◆ **[영연방]** 호주는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과 동군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다. 영국인이 최초 호주에 온 것은 1788년으로 알려졌다.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설립, 1942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장 적용을 받아 행정적으로 영국과 분리하게 되었다.
- ◆ **[지정학적 위치]**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본토와 태즈메니아 섬,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의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북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북동쪽에는 솔로몬 제도와 바누아투, 남동쪽에는 뉴질랜드가 있다. 인근 나라 중에 호주에게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국가는 없다.

## 나. 정부 구성

- ◆ **[국가원수: 국왕]**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는 호주의 여왕이자 국가 원수로 군림하며 연방 정부의 총독과 호주 정부의 주지사들에 의해 대표된다.
- ◆ **[입법부: 의회]** 호주는 양원제 의회를 택하는 국가로 상원 76명, 하원 151명으로 구성된다. 상원은 비례대표와 결합된 이양식 투표제로 선출되며 하원 의원 선출 방식은 태즈메니아 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선호투표제로 이루어진다. 선거구는 인구에 따른 소선거구로 나눈다.
- ◆ **[행정부: 내각책임제]** 하원의 다수당이 정부(내각)을 구성하고 당수가 총리가 된다. 많은 지지를 받은 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총독이 총리를 임명하며, 의회의 신임을 잃은 경우에는 파면한다.
- ◆ **[사법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과 다른 연방 법원으로 구성되며, 판사는 의회의 추천에 따라 행정 장관이 임명한다.

## 다. 지방행정

- ◆ 호주는 6개의 주 : New South Wales, Queensland, South Australia,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와 2개의 준주 :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로 구성된다. 연방 정부가 준주 정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준주는 주와 거의 동일하게 기능한다.



[그림 2-1] 호주 행정구역 구분  
(출처: VectorStock.com)

- ◆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원칙적으로 모든 영역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전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연방 의회는 51조에 명시된 영역 내에서만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각 주와 준주에는 각각의 의회가 있다.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준주 및 Queensland 주는 단원제, 나머지 주는 양원제로 구성된다. 하원은 입법 의회로 알려져 있고, 상원은 입법 회의로 알려져 있다.

## 2. 정치·경제환경<sup>2)</sup>

### 가. 개요

- 호주의 경제는 강건한 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가 발생한 이후로 중국과의 무역 연계 강화와 광물부터 신개발된 연안 석유·가스전까지 다양한 천연자원(특히 철광석, 석탄)의 상품가 급등을 이용하여 위기를 완화하였다.
- 이와 같은 경제적 안전성으로 말미암아 권력층의 정치적 안정성이 강해졌다. 그러나 각종 스캔들과 만성적인 실책이 잇따르자 경제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변혁의 목소리와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자유당 소속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총리가 11년간 이끌던 자유당 연합 주도의 연립정부가 2007년에 노동당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과거에도 난민정책과 같이 정치적 스캔들이 있었으나 선거에서 자유당 연립정부가 패배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하였다.
- 2013년 9월, 자유당-국민당 연합이 3년만에 하원 의석 중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정치적 불확실성 및 입법 지연이 초래되었다.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2016년 7월 연방총선을 통해 정권을 되찾았다.
- 또한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2019년 5월 연방총선에서도 승리를 거둬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가 연임하게 되었다. 차기 호주 연방총선은 2022년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될 예정이다.

### 나. 실업률

- 호주의 실업률은 1990년대 11%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18년에 약 5%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제약이 여전히 중·장기 사안으로 남아 있다. 노동력 공급(특히 숙련인력) 문제와 인구 고령화라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성장률과 산출량이 저하되고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이에 호주 정부는 기술이민에 초점을 두고 각종 정책적 조치를 단행하여 다양한 산업계에 노동력 공급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2)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 방위산업의 경우, 차세대 잠수함 산업인력 확보계획 등 방산제조부문 내 고급인력 양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되었다. 또 다른 신규 인력양성계획으로는 2019년 3월에 발표된 방위산업 STEM(Skilling and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전략이 있다.

## 다. 외국인 투자

- 호주의 외국인투자정책 및 FIRB(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에서는 호주군 등 군사조직에 납품될(또는 군용으로 사용될) 재화, 장비, 기술의 제조에 관련된 사업과 민감성이 높은 암호화, 보안기술, 통신체계에 관련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 따라서 호주 정부는 1975년 FATA(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법에 규정된 선별절차를 통해 외국인 기업의 인수·투자 시도를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가치액이 2억 5,200만 호주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은 FIRB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여러 미국계, 유럽계 기업이 탄약, 군용 사이버보안, 함정 건조 등의 분야에서 기업인수를 통해 시장에 진입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사례는 현지 산업과 해외 계약자 사이의 협력관계를 뒷받침한다는 AIC(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였다.

## 3. 안보환경<sup>3)</sup>

### 가. 호주군

- 현역 약 60,000명 및 예비역 약 20,000명 규모인 호주군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훈련도와 전투력이 높고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군으로 여겨진다.
- 최근 호주 육·해·공군은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 다국적군 파병부터 역내 평화유지, 재난구호, 인도주의적 임무 등 해외파병 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0년대 초, 호주군은 연합작전과 더불어 대테러 작전, 연안감시, 재난대응 등 국내 과업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구조

3)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개편을 단행하였다.

- 아울러 호주군은 단계적으로 합동교리 및 합동작전개념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주요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근래에 호주군은 전력구조 개편에서 상륙전력을 구축하는 동시에 육군 예하 3개 정규 여단을 여단급에 준하는 다목적 기동체대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나. 호주군 교리

- 지정학적 측면에서 호주는 전통적으로 전략적 이해관계상 호주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국이 역내 안보환경을 주도하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 아울러 호주는 중국, 인도, 일본으로 대표되는 역내 주요 강대국(또한 비교적 영향력은 덜하지만 러시아, 대한민국도 포함) 사이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조성되는 상황을 지양하고자 한다. 이에 호주의 수익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역(특히 해상무역)에 대한 위협 없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데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전통적으로 호주는 수상함 전력, 잠수함 전력, 공중 전력을 중심으로 북방 접근로를 사수하고 국토 전역에 신속전개가 가능한 지상군 전력으로 보완하는 형태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 오늘날 호주의 전략 목표는 호주 대륙을 굳건히 방어할 수 있고, 고강도 해외 분쟁에 다국적군으로 투입되어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안보상황에 대한 역내 대응능력을 구비한 군 전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 다. 안보이슈

- [인도-태평양]** 호주는 최근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영향을 받고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중국 자본이 넓게 퍼져있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아 G2 무역분쟁으로 인한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두고서라도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중국을 꼽고 있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2017년 외교백서에서는 중국에 대해 '영토 분쟁에 관해 호전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력을 확장

중인 중국이 기지화된 도서 거점을 기반으로 호주를 비롯한 남태평양 일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 ❖ 이러한 위협에 대해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약칭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원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일본·인도와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월 도쿄에서 열린 호주-일본 정상회담 간 中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 공군 연합 훈련 개최, 방문부대 지위협정 체결 추진 등에 합의하는가 하면, 3월에는 호주-ASEAN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역내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추진하는 등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 **[동티모르 및 남태평양]** 정치적 혼란 발생 시 호주 국민 보호 및 소개부터 재난구호, 경우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개입까지 호주 인접국을 대상으로 한 안정화 작전은 오래 전부터 국방계획에 반영되어 왔다.
- ❖ **[해상보안]** 호주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해상·공중 자산을 동원한 해상 접근로 통제가 호주군의 핵심 역할로 상정되어 있다. 해상보안의 군사적 측면에 부응하여 호주군은 밀수 방지, 인명 보호, 어업 보호를 목적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감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 ❖ **[역내/해외 보안작전]** 호주는 오래 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에 걸쳐 합동군사작전에 기여해 왔으며(평화유지임무 등), 이는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계속해서 주치하는 정책이다. 이에 과거 냉전기에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베트남 지역 내 작전 등이 수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동티모르와 솔로몬제도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난구호작전을 중심으로 개편된 상태이다.
- ❖ **[사이버보안]** 최근 수년간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전에 대한 호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호주군은 정보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사이버공격은 호주군의 전쟁수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사이버 공격 위협은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 양쪽에서 비롯될 수 있다.

## 4. 국제관계<sup>4)5)</sup>

- 2016년 호주 국방백서에서는 자국 국방전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국제 협력관계를 증진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국방 관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호주는 미국, 말레이시아, 일본, 뉴질랜드, 중국, 대한민국, 영국과 양국간·다자간 협약을 통해 안보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안보 난항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동맹·협업 기회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 호주외교 전략에서 호주, 미국, 중국 3국간 외교관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51년, 호주와 미국은 태평양안전보장조약(또는 “ANZUS 조약”)을 통해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조약에 따라 태평양 지역 내에서 미국 또는 호주를 대상으로 하는 무장 공격은 양국 모두에게 적대적인 행위로 취급된다. 태평양안전보장조약에 따라 미국은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 및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주었다.
- [대미관계]** 2014년, 미국과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배치계획(US Force Posture Initiatives)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배치협약(Force Posture Initiatives)을 조인하였으며, 현재 호주 북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해당 협약으로 말미암아 창출된 연합훈련 기회를 통해 재난구호작전,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발상황에 합동 대응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 제1차세계대전 이래로 호주군과 미군은 대부분의 주요 분쟁에 참전하여 같은 전장에서 싸워 왔으며, 2018년에는 호미연합 100주년 기념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호주와 미국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연합훈련, 전력개발사업, 합동작전, 연합작전, 정보협력을 함께 실시하였다. 호주와 미국은 정책 및 우선순위의 조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태평양 제도를 중심으로 역내 영향권을 확보하고 있고, 신형 보안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키고 있으며, 주호미군배치계획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 아울러 미국은 우주, 사이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호주와 협력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은 정기적인 평가 결과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국방정보 협력사업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상황 대응력과 상황 인지력을 향상시켰고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 및 지역 안정을 위해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미국과 호주는 2014년에 군배치협약을 조인하여 동맹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이 협약은 인도주의적 지원, 해상전력 구축,

4)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5) 호주 개황, 외교부, 2020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기회 확보를 목표로 25년 이상을 상정하여 체결된 협약이다.

- ❖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호주는 이라크의 대ISIS전을 지원하여 군사고문, 부대방호, 교육훈련 등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호주는 NATO 주도의 RSM(Resolute Support Mission)에 기여함으로써 아프간국방안보군을 상대로 교육훈련, 지원, 군사고문 파견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전 및 안보 확보에 돕고 있다. 아울러 호주는 필리핀과 대테러 역량 구축에 관련하여 확고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의무에 순응하게 하는 UNSR 주도의 집행작전의 주축을 맡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 ❖ 해상보안을 목적으로 호주는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 동티모르와 양국간·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FPDA(Five Power Defense Arrangement)는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과 조인한 다자간 협약이다. 2015년, 호주와 말레이시아는 전략적 협력관계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합의하였다.
- ❖ 글로벌 테러활동에 대항하여 호주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였다. 터키, 파키스탄, 프랑스, 인도네시아, 벨기에에서 벌어진 공격에 이어 스톡홀름과 런던에서 감행된 공격을 계기로 호주는 오크라 작전을 실시하여 이라크와 시리아에 약 7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였다. 하이로드 작전(Operation HIGHROAD)을 통해 호주는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보안지원, 전력구축, 개발지원을 도와주고 있다. 호주 정부는 퀸즈 배턴 릴레이(Queen's Baton Relay) 및 2018년 골드코스트 영연방게임(2018 Gold Coast Commonwealth Games) 관련 보안지원을 위해 추가 지출로 3,420억 호주 달러를 책정하였다.
- ❖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와는 1961년부터 수교 관계를 맺었으며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30.3억불이다. 한국과 호주는 2014년 12월 12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기타 주요 협정으로는 2000년도에 체결한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2010년도에 체결한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등이 있다.

## 2 절 획득정책 및 제도

### 1. 획득관련 법령 및 기구<sup>6)7)</sup>

#### 가. 획득 법령

- 호주의 획득 절차는 영연방의 통치체계, 책임관계 및 성과체계를 관할하는 공공관리 및 업무성과에 대한 법률(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PGPA) 및 공통 분야의 국제통상 및 조달에 대한 정부 정책 등을 명시하는 영연방조달규칙(Commonwealth Procurement Rules, CPR)의 원칙에 근거한다.
- CPR의 주요 원칙은 가치성(Value for money), 경쟁, 비차별, 윤리적 평등, 위험관리, 투명성 원칙을 호주 조달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국방 분야 조달에도 적용된다. 특히 가치성은 CPR 및 국방조달의 실무 규범인 국방조달정책규범(Defence Procurement Policy Manual, DPPM)이 가장 강조하는 원칙 중 하나로서, 조달원 선정 시 비용 등의 재정적 이익뿐만 아니라 비재정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재정적 이익인 호주 방위산업 참여도(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AIC)를 통한 자국 역량 강화이다.
- DPPM(Defence Procurement Policy Manual)(최종 개정: 2019년 7월)에 규정된 방산조달지침에서는 체계 수명주기에 걸쳐 조달사업 시 전반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3대 핵심 단계를 고려하도록 하는 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단계는 계획수립, 소상, 관리로 구분된다.

  - 계획수립: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이 단계에서 국방부 측 담당자는 잠재 공급자에게 서류 요청을 전달하기에 앞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개요와 관련 위험도를 기술하여야 한다.
  - 소상: 시장에 접촉하여 옵션을 평가한 후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은 공개입찰 절차 또는 지명입찰 절차를 통해 체결된다. 또한 응찰업체에 대해 평가한다.
  - 관리: 계약 관리 및 처분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는 조달비용과 사용비용에 대한 관리와 후속 계약 처분이 수반된다.

6)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7) 호주 국방부 홈페이지

## 나. 획득 관련 조직

- ❖ 호주 방산조달사업은 호주 국방부가 관리 감독한다. 호주 국방부의 조직은 9개 본부(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인 방위사업청(Capability Acquisition & Sustainment Group, CASG)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국방부의]소요 및 정부 승인에 따른 수량 및 사용수준에 맞게 군용 장비 및 보급품을 조달하고 유지”할 권한을 갖고 있다.
- ❖ CASG 내에는 각종 전력을 담당하는 여러 처(Division)가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공중처(항공 우주체계, 헬기체계 포함), 지상체계처, 합동체계처, 해상처가 있다. 또한 CASG에서는 사업관리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관리처는 CASG 사업계획의 성과 달성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고, CASG 본부운영예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 CASG은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유기관인 호주 정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합동군사령관과 고객기관인 호주군, 협력기관인 방위산업이 있다.
- ❖ 호주 의회 지침에서는 조달사업 가액에 따라 요구되는 정부 심사의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0만 호주 달러 이하의 조달사업은 장관 1인(국방부 장관)이 승인하고, 2,000만 호주 달러 초과 1억 호주 달러 이하의 조달사업은 장관 2인(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며, 1억 호주 달러 초과인 조달사업은 NSC(National Security Committee of Cabinet)에서 승인한다. 의사 결정을 관할하는 협의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mmittee of Cabinet): 총리를 의장으로 한 국방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
  - 국방위원회(Defence Committee) : 국방획득절차의 핵심 의사결정 기구로서 1차 승인에 대한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산하 위원인 투자위원회 및 상업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 국방위원회 산하 위원회이며 투자계획의 적절성 및 진행 현황을 관리하며 필요시 국방위원회를 지원한다.
  - 상업위원회(Enterprise Business Committee) : 예산성과 모니터링 수행 및 보고를 담당하며 필요시 국방위원회를 지원한다.

[표 2-2] 의사결정 협의체별 구성인원(2020년 4월 기준)

위원회	구성
<p><b>국가안보 위원회</b></p>	<p>(의장)총리 - Scott Morrison, Prime Minister (의장)                      부총리 - Michael McCormack, Deputy Prime Minister                      외교장관 - Marise Payne, Foreign Minister                      재무장관 - Josh Frydenberg, Treasurer                      국방장관 - Linda Reynolds, Defence Minister                      행정장관 - Peter Dutton, Home Affairs Minister                      법무장관 - Christian Porter, Attorney-General</p>
<p><b>국방위원회</b></p>	<p>(의장)국방차관 - Greg Moriarty, Secretary of Defence                      국방참모총장 - General Angus J. Campbell, Chief of the Defence Force                      국방차관보 - Steven Groves, Associated Secretary of Defence                      국방참모차장 - Vice Admiral David Lance Johnston, Vice Chief of the Defence Force                      전략 정책·정보 차장 - Peter Tesch, Strategic Policy and Intelligence                      재정참모장 - Glen Casson, Chief Finance Officer</p>
<p><b>투자위원회</b></p>	<p>(의장)국방참모차장 - Vice Admiral David Lance Johnston, Vice Chief of the Defence Force                      전략 정책·정보 차장 - Peter Tesch, Strategic Policy and Intelligence                      재정참모장 - Glen Casson, Chief Finance Officer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차장                      재정부 소속 고위급 간부</p>
<p><b>상업위원회</b></p>	<p>(의장)국방참모차장 - Vice Admiral David Lance Johnston, Vice Chief of the Defence Force                      전략 정책·정보 차장 - Peter Tesch, Strategic Policy and Intelligence                      재정참모장 - Glen Casson, Chief Finance Officer                      각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차장                      지원부서(인사, 정보통신기술, 시설)의 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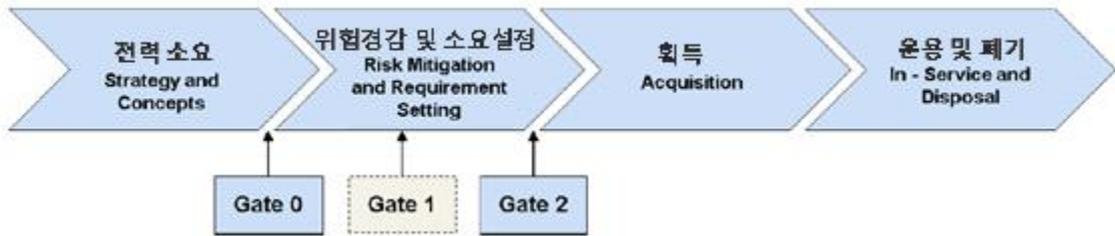
국가안보위원회 National Security Committee of Cabinet		국방위원회 The Defence Committee	
	(의장)총리 Prime Minister The Hon <b>Scott Morrison</b> MP		(의장)국방차관 Secretary of Defence, Mr. <b>Greg Moriarty</b>
	부총리 Deputy Prime Minister, The Hon <b>Michael McCormack</b> MP		국방참모총장 Chief of the Defence Force, General <b>Angus J. Campbell</b>
	외교장관 Foreign Minister, Senator the Hon. <b>Marise Payne</b>		국방차관보 Associated Secretary of Defence, Mr. <b>Steven Groves</b>
	재무장관 Treasurer, The Hon <b>Josh Frydenberg</b> MP		국방참모차장 Vice Chief of the Defence Force, Vice Admiral <b>David Lance Johnston</b>
	국방장관 Defence Minister, Senator the Hon <b>Linda Reynolds</b> CSC		전략 정책·정보 차장 Strategic Policy and Intelligence, Mr. <b>Peter Tesch</b>
	행자장관 Home Affairs Minister, The Hon <b>Peter Dutton</b> MP		재정참모장 Chief Finance Officer, Mr. <b>Glen Casson</b>
	법무장관 Attorney-General, The Hon <b>Christian Porter</b> MP		

[그림 2-2] 국가안보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

## 2. 획득절차<sup>8)9)10)</sup>

### 가. 세부전력수명주기(Capability Life Cycle Detailed Design)

- 호주의 획득 절차는 2016년 First Principle Implementation Committee에 의해 First Principle Review가 수행되면서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위원회는 세부전력수명주기(Capability Life Cycle Detailed Design, CLCD) 개념을 도입시키며 획득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했다.
- 세부전력수명주기는 전력소요, 위험경감 및 소요설정, 획득, 운용 및 폐기,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림 2-3] 호주군 획득절차

- (전력소요, Strategy and Concepts)** 전력지침서에 명시된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전력소요를 예산 범위 내에서 식별하는 단계로서 산출물은 합동전력소요서(Joint Capability Needs Statement) 및 사업실행전략(Project Execution Strategy) 등이다.
- (위험경감 및 소요설정, Risk Mitigation and Requirement Setting)** 위험경감 및 소요설정 절차는 획득절차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서 각 승인단계(gate)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험성 또는 변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군의 전력소요를 바탕으로 계약 가능 수준의 사업계획서(proposal)를 작성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험경감 절차는 3개의 승인 단계를 거친다.
- (1차 승인/Gate 0 : 사업 내용에 대한 국방부 내부 의사결정 단계)** 군의 능력소요 및 내부적으로 식별된 선정 후보군, 위험평가 및 추진 전략을 고려하여 최초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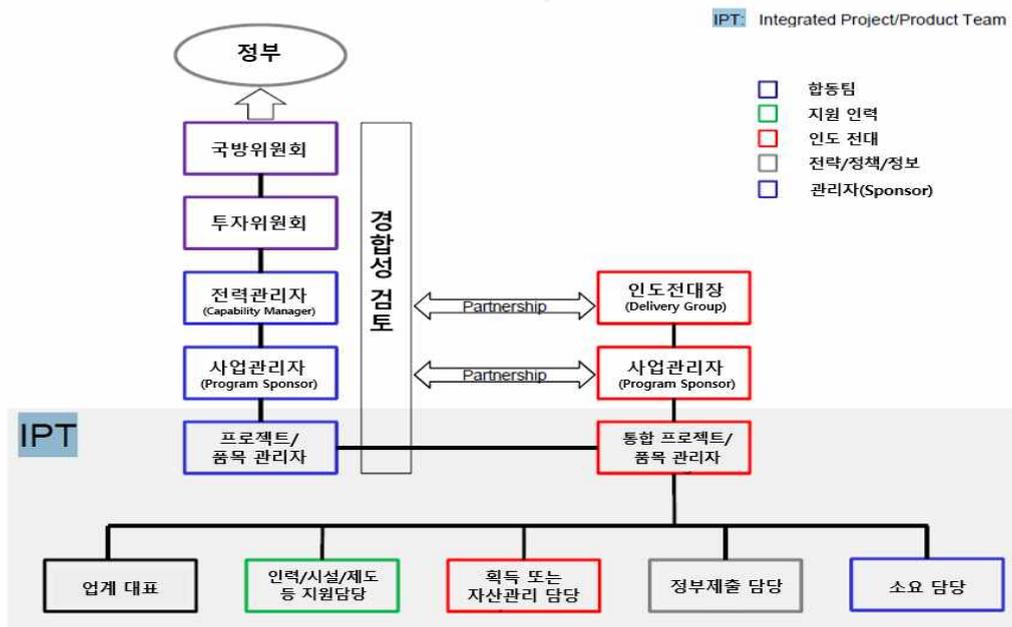
8) Capability Life Cycle Detailed Design, 호주 국방부, 2019

9) Introduction to the Capability Life Cycle and Capability Management Practices, UNSW, 2018

10)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계획서는 사업개요서(Sponsor's Paper), 합동전력소요서(Joint Capability Needs Statement) 및 사업추진전략서(Project Execution Strategy)로 구성된다.

- 국방참모차장 승인 후 2차 또는 3차 승인 단계 진행
- ❖ (2차 승인/Gate 1 : 정부의 투자 승인 단계) 정부 승인이 요구되는 복잡하거나 고위험군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로 본 절차를 통해 단일 또는 복수의 후보군을 선정할 수 있다.
  - 국방위원회 또는 투자위원회 승인 사항이며 긴급 소요의 경우 생략 가능
- ❖ (3차 승인 전/Pre-Gate 2 : 제안 및 업체 선정) 2차 승인 후 제안 및 업체 선정절차 (Solicitation and Source Selection)가 시작되며 참여의사등록 요청(Invitation to Register Interest), 입찰요청(Request for Tender) 등을 통한 업계 참여와 위험경감활동이 본격화된다. 국방부의 각 사업별 IPT는 위험 경감을 위해 다음을 수행한다.
  - 시험평가, 분석, 모델링, 연구 등의 위험경감 활동
  - 사업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한 이해 및 정의 개선
  - 추진 전략, 후보군 및 결정 요소를 고려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소요 확정 및 비용 산출을 위해 작업단계 확정 및 PWBS(세부 사업단위 WBS), CWBS(계약 단위 WBS) 작성



[그림 2-4] IPT 및 획득별 담당부서 업무 구조도

- 상기 활동 및 군 합동전력소요서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작성하며, 사업의 전력관리자(capability manager)는 위 경감활동 결과 및 상위기구의(국방위원회, 투자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자 선정안을 포함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 (3차 승인/Gate 2 : 계약 및 획득을 위한 최종 승인)** 확정된 사업추진전략, 사업자 선정 안을 포함한 최종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 결과에 따라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권한, 예산 및 사업기간에 대한 최종 승인을 획득한다.

[표 2-3] 조달규모별 최종 승인자(기구)

조달규모	승인자(기구)
2천만 AUD 이하	국방부장관
2천만 AUD ~ 1억 AUD	국방부장관, 재정부 장관
1억 AUD 이상	국가안보위원회(NSC)

- (획득, Acquisition)** CPR 조항에 의거 계약 체결 및 전력화를 위한 절차 수행 한다.
- (운영 및 폐기, In Service and Disposal)**
  - 운영 단계 : 무기체계 수명 주기에 따른 유지보수 활동 포함한 운영·유지 활동
  - 폐기 단계 : 폐기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교체 준비 단계 포함

#### 나. 호주방위산업 참여도(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AIC)

- 호주 정부는 AIC(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의 참여 및 개발을 보호하고 있다. AIC 제도는 2016년 DIPS(Defense & Industry Policy Statement)의 핵심사항을 충족한다는 목표를 띠고 있다. AIC 제도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업체가 국내·외 방산사업에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조성
  - OEM 업체, 해외 계약자, 호주 현지 자회사 주도의 비용효율적인 지원 확보
  -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 용이화
- AIC 제도의 목표는 호주 업체에게는 방산사업 입찰 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해외 OEM 업체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에 호주 현지 자회사를 포함한 해외 방산계약자로 하여금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한다.

## 다. 해외획득

- ◆ 호주 국방부는 해외조달업무를 담당하는 해외 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 소재한 CASG 워싱턴(CASG-W) 사무소는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및 상업구매를 통한 획득사업을 담당하며, 영국에 소재한 CASG 런던(CASG-L) 사무소는 영국, 유럽, 이스라엘을 통한 조달사업을 담당한다.
- ◆ CASG 워싱턴 사무소와 CASG 런던 사무소는 시장조사, 요청서 개발, 시장 접촉, 계약관리를 지원한다.
- ◆ 미국 대외군사판매 제도를 통한 획득사업일 경우에 현행 조달규정에 따르면 CASG 워싱턴 사무소에게 요구사항기술서(Statement of Requirement)를 전달하여 미국 정부에게 제출할 요청서를 개발하게 한다. 납품시간 단축 및 수출허가 발급 지연 저감을 목표로 하는 호-미 방산무역협력조약을 통해 미국과 호주의 방산무역연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 ◆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가 체결한 CER(Closer Economic Relations) 협정과 CDR(Closer Defence Relations) 협정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방위산업은 “기타 고려사항에 의해 지위가 말소되지 않는 한” 호주 방위산업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 3. 예산편성절차<sup>11)</sup>

- ◆ 예산절차는 의회 승인 하에 공공부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의사결정절차이다. 이에 호주 정부는 승인된 예산안을 정부부처 및 기타 영연방 기관에게 분배한다. 1984년 예산개혁 추진 이후로 예산절차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다. 현행 예산절차에는 FMIP(Financial Management Improvement Program)의 주요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상황에 따르면 예산편성절차는 매년 달라진다.
- ◆ **[9월 - 차년도 예산 편성 일정 내각 제출]** 재무장관과 재정장관은 차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 절차와 일정을 내각에게 제출한다.
- ◆ **[10월 - 각 부처(장관)으로부터 예산요구 접수]** 총리는 각부 장관으로부터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접수받는다. 각부 장관은 예산 요구안을 10월말까지 서신으로 제출한다.

11) The Australian Defense Market. Globaldata, 2020

다. 예산 요구안은 재무부, 재정부 그리고 총리내각부의 1차 검토를 거친다.

- ❖ **[11월 - 고위급장관검토회 / 전략예산위원회]** 예산 요구안을 검토한 3개의 부처는 각각 검토의견을 내며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승인 절차를 거친다.
- ❖ **[1월~2월 - 예산안의 세부내용 확정]** 고위급장관검토회 및 전략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에 대해 각 부처는 재정부 협의가 완료된 세부 비용산출 내역을 포함한 사업별 최종 예산안을 작성한다.
- ❖ **[3월 - 지출안검토위원회]** 지출안검토위원회는 3월 4주동안 10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경제 및 재정전망을 고려한 최종 취합본 작성을 위해 사업별 승인, 수정, 보완 및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 ❖ **[4월 - 예산 내각]** 지출안검토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예산 내각에서 논의 및 재고려된다. 4월말에는 세입위원회가 예산 내각과 회의를 하여 정치 지리적 상황에 따른 세입 예상액에 대해 논의한다.
- ❖ **[4월~5월 - 최종 승인]** 세입위원회 이후 고위급 장관에게 "hunting license(최종승인)"을 부여하고 각 부처는 세부사항을 결정하여 최종 예산안을 작성한다.
- ❖ **[5월 - 최종 예산안 의회 제출]** 5월 둘째주 화요일에 최종 예산안이 상원과 하원에 제출된다.

## 제 3 절 방산시장 전망분석

1. 군사 육성정책 및 획득 중점<sup>12)13)</sup>

## 가. 전략국방 프레임워크

- ❖ 2016년 국방백서 및 2012년 ADFPR(Australian Defence Force Posture Review)에 따르면 호주의 전략 목표는 크게 3가지로, 1) 국가안보 확보 및 북방 접근로·인근 해상 병참선 사수, 2) 동남아시아·태평양 제도를 비롯한 인근 지역 사수, 3)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화로 나눌 수 있다.
- ❖ 또한 2016년 국방백서에서는 이들 전략 목표에 세부목표를 결부시킨 전략국방 프레임워크(Strategic Defence Framework)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군사공격 억제, 안보전력 구축 차원의 역내 군사조직 지원, 호주의 국익에 부합하는 다국적 합동작전에 호주군 투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부목표들을 달성함으로써 향후 전력 개발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
- ❖ 또한 전략국방 프레임워크는 국가안보 목표를 확장하여 사이버공격, 위성요격 무기체계, 탄도 유도탄 등 지리를 초월한 위협도 최초로 포함시켰다.

## 나. 2020 국방전략최신화(Defence Strategic Update)

- ❖ 호주 정부가 2020년 7월 1일 발표한 「2020 국방전략최신화(2020 Defence Strategic Update)」에 따르면, 호주는 향후 10년 동안 신규 사업 및 성능개량 사업을 위한 2,700억 AUD를 포함하여 총 5,750억 AUD(3,974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 ❖ 「호주국방백서 2016」을 최신화한 이 정책문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2019-20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387억 AUD, 20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422억 AUD였다. 「2020 국방전략최신화」정책문서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예산은 계속 증가하여 2029-30 회계연도 예산은 737억 AUD에 달하게 되는 등 '21

12)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호주 국방부, 2020

13) 2020 Force Structure Plan, 호주 국방부, 2020

년도부터 '30년도까지 전체 예산 규모는 총 5750억 AUD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향후 10년간 전체 국방예산 5750억 AUD 중 2,700억 AUD은 획득예산이며, 이는 2016년 국방백서가 발표당시 계획되었던 10년간('17년도부터 '26년도까지) 획득예산인 1,950억 AUD와 비교된다. 144억 AUD인 2020-21 획득 예산은(국방예산의 34%) 2029-30 획득 예산 기준 292억(국방예산의 40%)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 ▣ 이 정책문서에는 향후 10년 간 호주방위군(Australian Defence Force, ADF)의 해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획득예산의 28%인 750억 AUD가 배정되었고, 공중 및 지상 능력분야 획득예산으로는 각각 650억 AUD(24%) 및 550억 AUD(20%)가 배정되었다. 또한 방산기반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획득예산으로 300억 AUD, 사이버 방어 예산 150억 AUD, 방산기업의 회복력(resilience) 및 자립성 확보를 위해 150억 AUD, 우주 분야에 70억 AUD, 국방정보통신기술력 개발을 위해 50억 AUD가 배정되었다. 국방 혁신, 과학기술 분야에는 30억 AUD가 투자될 계획이다.
- ▣ 미사일 분야의 경우 약 8억 AUD의 예산으로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Long-Range Anti-Ship Missiles, LRASM) 200발을 조달하며, 2021년부터 이 미사일을 호주 공군(Royal Australian Air Force, RAAF)의 F/A-18F Super Hornet 전투기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AGM-158C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사거리가 370km로서 호주 방위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RGM-84 Harpoon Block II 대함미사일 사거리의 3배 가까이 된다.
- ▣ 해상전력 분야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공격용 재래식 잠수함 12척, Hunter급 호위함 9척, Arafura급 연안초계함 12척 건조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신규 획득사업으로는 신형 통합수중감시체계, 원격조종항공체계, 첨단기뢰, 기뢰 대응 및 해양조사에 최적화된 신형 함정 8척, Cape급 초계정 6척, 다목적 해상수송 보급함정 2척, Supply급 보급함정 2척이 포함되어 있다.
- ▣ 항공전력 분야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F-35A Lightning II 합동타격전투기 72대, MQ-9B Sky Guardian 원격조종항공기, MC-55A Peregrine 전자전 항공기 조달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규 획득사업으로는 고속 미사일 및 장거리 타격 무기체계(현재 구체화되지 않음), 스텔스 무인기(Air Teaming Vehicle)를 포함한 원격조종/자율비행 전투기가 포함되었으며, 극초음속(hypersonic) 무기를 포함한 고속미사일에 관한 연구개발 투자도 계획되어 있다. 또한, 10억 AUD는 Jindalee 초수평선 탐지 레이더 네트워크 확장에 투자될 계획이다.
- ▣ 육군전력 분야의 경우 계속사업으로 2개 연대 규모의 155mm 자주곡사포를 포함한 장거리 로켓 발사 및 화포체계 조달을 위해 77억~115억 AUD의 예산이 지출될 예정이다. 신규획득

사업으로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Directed-energy Weapon, DEW) 및 스마트 대전차 지뢰와 같은 새로운 대장갑능력 분야에도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또한, 34억~51억 AUD를 투자하여 현재 운용중인 Tiger 무장정찰헬기도 교체할 계획이다.

- ❖ 정보전 및 사이버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공세·방어적 사이버 능력을 강화하고, 전자전 능력을 강화하며, 정보·감시·정찰체계(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방어적 사이버 작전을 위해 19억~30억 AUD가 지출되며, 호주방위군(ADF)의 네트워크 회복력 강화를 위해 33억~50억 AUD가 투자될 계획이다.
- ❖ 국방부는 우주능력 분야 투자를 통해, 호주가 통제권을 가진 통신위성 및 지상통제소를 포함한 미래 위성통신체계를 개량 및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전력 강화에 핵심이 되는 주요 기반시설, ICT, 혁신, 과학기술 사업에 500억 AUD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 탄약 보급을 위해 200억~300억 AUD를 배정하고 유도무기 및 폭발물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15억 AUD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 다. 2020 전력구조계획(Force Structure Plan)

- ❖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1일 「2020 국방전략 최신화」와 함께 「2020 전력구조계획(2020 Force Structure Plan)」도 발표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방능력 투자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 전력구조계획에는 기존의 다양한 산업협력정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자국 내 방산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파괴적(disruptive)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1.3억 AUD 규모의 능력개발촉진기금(Capability Acceleration Fund) 마련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 2. 주요 무기체계 획득 동향진행 / 예정 획득사업<sup>14)</sup>

### 가. 항공분야

- ❖ [Air 7000 Phase 1b: 고고도 장거리 체류형 무인기] Air 7000 Phase 1b 사업에 따른 호주군의 고고도 장거리 체류형 무인기 획득이 2019~2022년으로 연기되었다. 호주 정부는 2013년 국방백서 발간 후, 미국 정부에게 요청서를 제출하여 Global Hawk를 기반으로 해상

14)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감시에 특화된 모델인 Northrop Grumman MQ-4C Triton 획득에 소요되는 잠재 비용을 제시하였다. 2018년 6월, 호주 정부는 Triton 6대를 조달할 것으로 밝혔으며, 초도기는 2023년 전까지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 **[Air 7000 Phase 2: 해상초계기]** 노후화가 진행 중인 호주 공군의 Lockheed Martin AP-3C Orion 해상초계기 전력을 Air 7000 Phase 2 사업을 통해 Boeing P-8A Poseidon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AP-3C는 노후장비 관리사업(Air 5276)을 통해 필요에 따라 체계를 정비 및 개량하여 기체 노후화, 부식 등 문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 P-8A 초도기는 2017년에 납품되었다. 이후 2020년대 말까지 15대를 납품하는 것으로 추가 발주되었다.
- ❖ **[Air 555 Phase 1: 전자전 특수임무항공기]** 2015년 말, 미국 정부는 Gulfstream G550 상용제트기를 신호정보 및 전자정보 관련 임무에 적합한 사양으로 개장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L-3 Communications와 체결하였다. 이에 최대 5대가 2020년대 초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 **[특수작전용 경량 공격정찰헬기]** 2016년 IIP에서 호주 정부는 특수작전용 경량 공격정찰헬기 조달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밝혔다. 해당 헬기는 인질구출 등 신속대응작전에 투입되는 용도이며, C-17A Globemaster III 수송기로 수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잠재 후보군으로는 Boeing AH-6i, H145M 등이 있다. 사업 관련 정보요청서가 2018년 10월에 발행되었다.

## 나. 해상분야

- ❖ **[Sea 1000: 차세대 잠수함]**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호주군 잠수함 전력을 12척 편성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확인되었으며, 이 계획은 2016년 국방백서에서도 재차 언급되었다. Attack급으로 명명될 신형 잠수함은 대체 대상인 현용 Collins급 잠수함 6대에 비해 강화된 성능을 보일 것이다. 2016년, Naval Group이 Shortfin Barracuda 설계로 사업 소요를 충족할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건조공정은 ASC(가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 현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2019년 2월, Naval Group이 이 사업에 관련된 설계 계약을 호주 정부와 체결하였다.
- ❖ **[Sea 4000: Hobart급 대공구축함]** Navantia F-100 설계에 기반하여 Aegis 체계가 탑재된 대공구축함 3척이 획득될 예정이다. 건조공정은 스페인과 ASC, BAE Systems를 포함한 호주 각지 조선소 3곳에서 수행되었다. 사업 지연 후, 1번함과 2번함이 각각 2017년, 2018년에 취역하였으며 3번함은 2019년에 호주 해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 **[Sea 1654 Phase 3: 해상지원함]** 호주 해군은 Sea 1654 Phase 3 사업을 통해 Sirius함과 Success함을 대체할 단일 선급의 전투지원함을 획득할 계획이다. 2016년 5월, 관련 계약이 Navantia와 체결되었으며, 계약가액의 20%는 호주 산업에게 작업(전투체계·통신체계 통합, 종합군수지원, 함상 크레인 관련 요소)을 발주하는 명목으로 책정되었다.
- ◆ **[Sea 3036: 태평양 초계정]** 호주 정부는 태평양 제도 지역에서 각국 정부가 운용할 연안초계정을 최대 21척 조달할 계획이며, 건조공정은 호주에서 수행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호주 정부는 연안초계정을 건조하여 어업 보호, 해상감시, 보안 등 임무에 투입한다는 목적으로 공여할 계획이다. 이에 12~13개국에 공여를 받을 예정이며, 수명기간(30년) 전반에 걸친 지원 및 전투지속 관련 계약도 전체 조달계획에 포함되었다. 2016년에 Austal이 연안초계정 건조 계약을 수주하였다.

#### 다. 지상분야

- ◆ **[Land 400 Phase 3: 보병전투장갑차]** 2018년 8월, 호주 정부는 '60년대 도입된 M113 기갑 수송차량을 교체할 보병전투장갑차(Infantry Fighting Vehicle, IFV) 467대, 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Land 400 3단계 사업의 입찰요청서를 공개하였다. 2019년 9월 1차 평가 후 2개의 최종 후보로 한화디펜스의 Redback IFV와 Rheinmetall사의 Lynx IFV를 선정하였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22년 완료 예정이다.

[그림 2-5] Rheinmetall사의 Boxer 전투 정찰 장갑차



- ❖ **[Land 19 Phase 7B: 지상기반 방공·유도탄 방어]** 2015년 7월, 호주 정부는 Saab RBS-70 와 Lockheed Martin PSTAR-ER 레이더가 조합된 체계를 대체할 신형 지상기반 방공·유도탄 방어 체계에 관련하여 정보요청서를 발행하였다. 2017년 초 호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단일 공급자 지명입찰 절차를 통해 NASAMS 체계가 선정되었으며 Raytheon 호주지사가 주계약자로 선정되었다.
- ❖ **[전술무인기]** 호주 국방부는 JP 129 사업을 통해 무인기 전력 획득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P 129 Phase 4 사업에서는 부대 방호력 강화 및 상황인식력 개선을 목표로 지상군 부대에 편성될 정보·감시·정찰 전력을 Tier 1 무인기 체계를 통해 획득할 계획이며, 초기운용능력은 2020년 전까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군은 Tier 1 무인기 체계인 Elbit Systems Skylark I을 2008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투입할 목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하고 있다.
- ❖ **[Land 121 Phase 3B: 병참차량(Overlander)]** Rheinmetall MAN Vehicles 호주지사가 방호/비방호 중·대형 수송차량 약 2,600대와 특수모듈 약 3,000개를 호주군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별도의 4억 호주 달러 계약을 통해 호주 업체인 Haulmark Trailers가 트레일러 1,70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차량 자체는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Rheinmetall MAN Vehicles 산하 공장에서 제작될 것이다. 모듈 생산, 일부 차체-차량-C4I 통합 등 기타 역무는 Rheinmetall MAN Military Vehicles 호주지사와 현지 협력사가 수행할 계획이다.

### 3. 예산 지출 전망(2019~2024)<sup>15)</sup>

#### 가. 개요

- **전망 기간 동안 호주 국방지출 연 평균 성장률 8.66%, 2024년 407억 미국 달러 예상**

- ❖ 호주 국방예산은 이전까지 연 평균 성장률 2.39%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244억 미국 달러에서 2019년 269억 미국 달러까지 증액되었다. 호주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제시하였듯이 군 현대화 계획과 첨단 장비 조달사업을 통해 군 전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의지가 전망 기간 동안의 국방지출 증대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호주는 현재 핵심 현대화사업 및 조달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은 2032년 말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인근 지역 내 UN 평화유지작전에도 참여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호주 국방지출

15) The Australian Defense Market. Globaldat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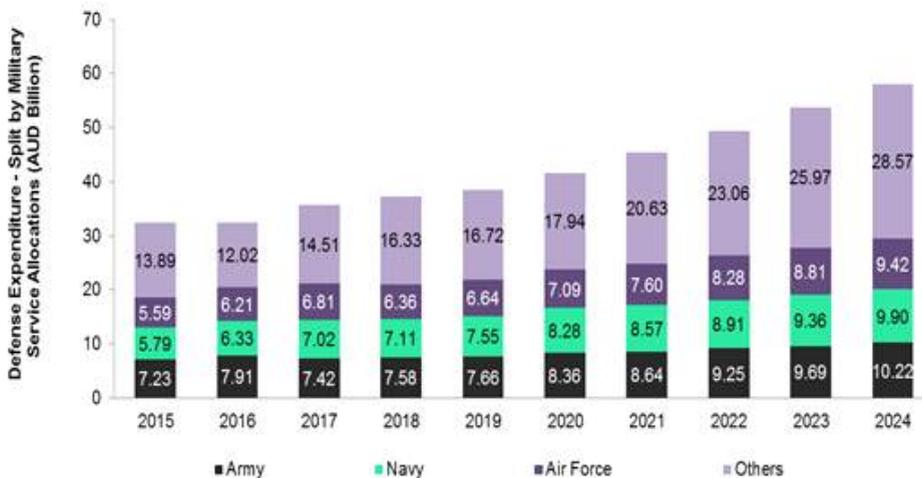
이 증대되는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국방예산이 2020년 292억 미국 달러에서 2024년 407억 미국 달러까지 증가하여 연 평균 성장률 8.66%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 획득예산 편성비중은 2020년 34.4%에서 2024년 4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망 기간 동안 획득예산 누계는 662억 미국 달러에 상당할 것이다. 호주 국방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함정사업이 획득예산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익지출은 2020년 191억 미국 달러에서 2024년 244억 미국 달러까지 증가하여 연 평균 성장률 6.27%를 기록할 것이다.

## 나. 각 군별 예산 편성 비중

### - 국방예산 중 육군 부문이 가장 큰 비중, 그 다음 해군, 공군 순

- ◆ 2019년, 호주 정부는 육군 예산으로 77억 호주 달러, 공군 예산으로 76억 호주 달러, 해군 예산으로 66억 호주 달러, 기타 부문 예산으로 167억 호주 달러를 편성하였다. 전망 기간 동안 육군, 공군, 해군, 기타 부문의 예산 편성액 누계는 각각 462억, 412억, 450억, 1,162억 호주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각의 연 평균 성장률은 5.14%, 4.54%, 7.35%, 12.34%로 전망된다. 기타 지출은 정보전력, 국방 지원·혁신, 과학기술 명목의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지출은 전망 기간 동안 총 지출 중 평균 46.5%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6] 2015~2024 군별 국방예산(단위 : 10억 AUD)

-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역내 테러조직발 안보 위협, 해외 평화유지임무를 위한 부대 전개로 말미암아 호주는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다목적 항공기, 헬기, 원자력공격잠수함, 초계함정, 호위함, 장갑차량을 획득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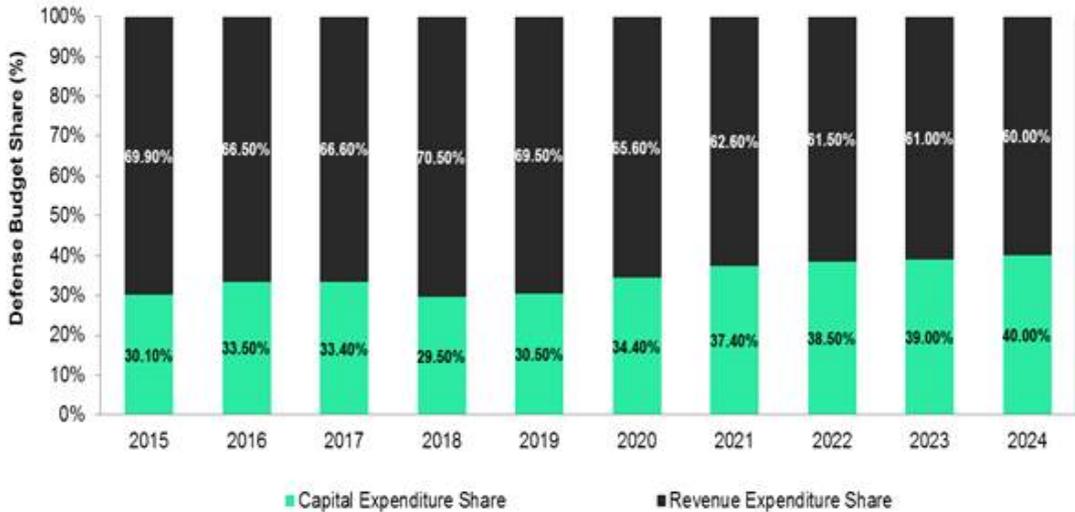
## 다. 획득예산 동향

### - 획득예산 비중 증가 예상

- 이전까지 호주 국방예산 중 평균 31.4%가 획득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획득예산 비중은 전망 기간 동안 37.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으로 획득예산 편성액은 82억 미국 달러였으며, 2024년에는 163억 미국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획득예산 편성액의 주요 명목은 호주에서 계획 중인 현대화 사업과 조달계획이 될 것이다. 획득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군 조달사업인 360억 미국 달러 규모의 호주 차세대 잠수함 사업, Hunter급 호위함 9척 건조사업, 호주군 사상 최대 규모의 지상체계 획득사업인 75억 미국 달러 규모의 Land 400 사업이 있다.
- 군 병력 모집, 교육훈련, 계발 관련 사업에 편성되는 수익지출의 비중은 이전 기간의 평균 68.6%에서 전망 기간 동안 62.2%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2024년 호주 국방예산 내 획득예산 및 수익지출 비중을 정리한 표와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표 2-4] 2015~2024 호주 국방예산 내 획득예산 및 수익지출 비중

연도	획득예산 비중	수익지출 비중
2015	30.1%	69.9%
2016	33.5%	66.5%
2017	33.4%	66.6%
2018	29.5%	70.5%
2019	30.5%	69.5%
2020	34.4%	65.6%
2021	37.4%	62.6%
2022	38.5%	61.5%
2023	39.0%	61.0%
2024	40.0%	60.0%



[그림 2-7] 호주 국방예산 내 획득예산 및 수익지출 비중

## 라.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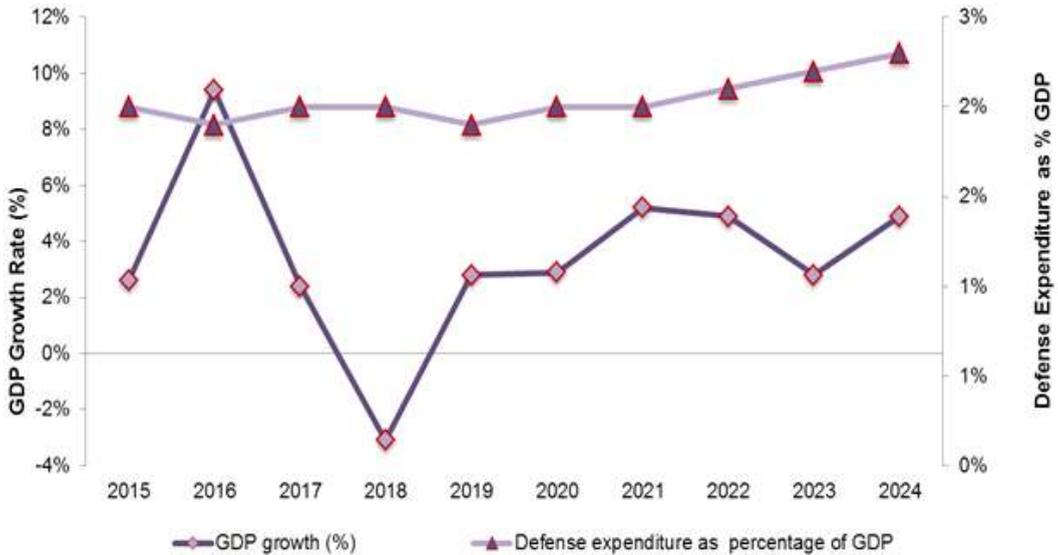
### - GDP 내 호주 국방예산 비중 평균 2.1% 유지 예상

- 호주의 국방지출은 호주의 경제성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띠고 있으며, 이전까지 호주 GDP는 연 평균 성장률 2.06%를 기록하였고 국방지출 성장률은 2.39%를 기록하였다. 호주가 군 현대화에 주력함에 따라 전망 기간 동안 국방지출이 연 평균 성장률 8.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전까지 평균 1.92%이었으며, 전망 기간 동안 2.09%까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2024년 기간 동안 호주 GDP 성장률과 GDP 내 국방지출 비중을 비교한 표와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표 2-5] 2015~2024 호주 GDP 성장률 대 GDP 내 국방지출 비중 비교

연도	GDP 성장률(%)	GDP 내 국방지출 비중
2015	2.6%	2.0%
2016	9.4%	1.9%
2017	2.4%	2.0%
2018	-3.1%	2.0%
2019	2.8%	1.9%

2020	2.9%	2.0%
2021	5.2%	2.0%
2022	4.9%	2.1%
2023	2.8%	2.2%
2024	4.9%	2.3%



[그림 2-8] 2015~2024년 호주 GDP 성장률 대 GDP 내 국방지출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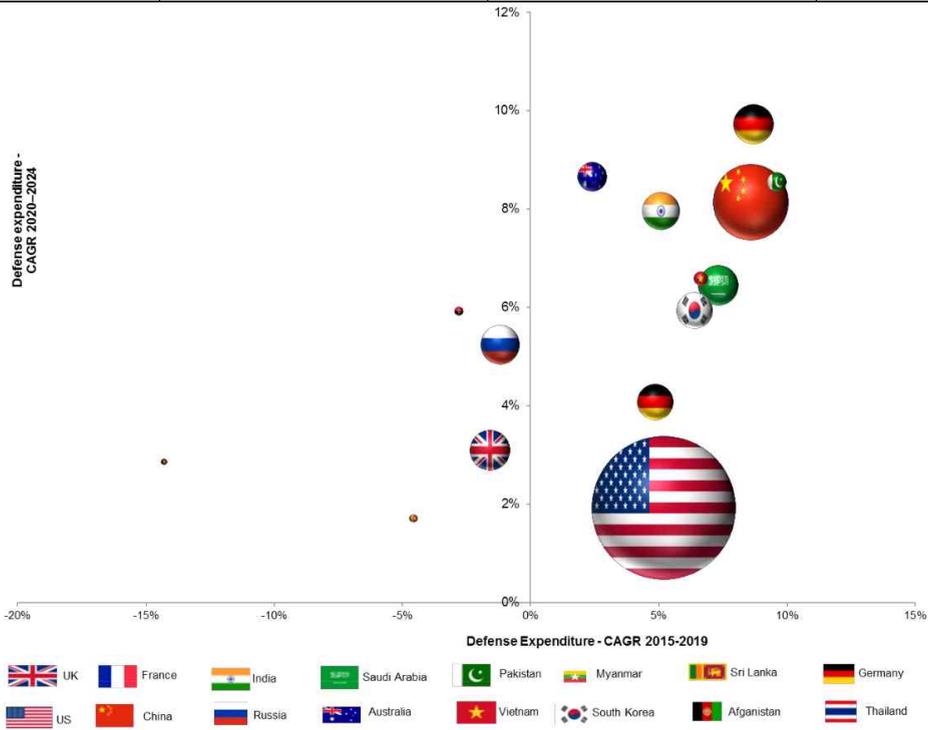
#### 마. 주요 국방지출국 대비 지출 전망

##### -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이나 주요 국방지출국 대비는 저조

-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국방지출 규모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하며, 전망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방위산업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할 것이다. 호주의 국방지출은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보다는 낮으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태국 등 여타 인도-태평양 국가보다는 높다. 전망 기간 동안 호주 국방지출은 연 평균 성장률 8.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2015~2024 호주-주요 시장 국방 지출 비교(단위 : 십억 USD)

국가	'15~'19년 연 평균 성장률	'20~'24년 연 평균 성장률	'19년 예산
미국	5.19%	1.93%	686
중국	8.58%	8.14%	189
영국	-1.59%	3.10%	52
독일	8.69%	9.73%	51
사우디아라비아	7.31%	6.45%	51
러시아	-1.20%	5.25%	50
인도	5.07%	7.96%	47
프랑스	4.86%	4.08%	42
대한민국	6.38%	5.94%	42
<b>호주</b>	<b>2.39%</b>	<b>8.66%</b>	<b>27</b>
파키스탄	9.59%	8.56%	11
태국	5.72%	4.54%	7
베트남	6.62%	6.59%	6
미얀마	-2.81%	5.93%	2
스리랑카	-4.58%	1.71%	2
아프가니스탄	-14.30%	2.87%	1



[그림 2-9] 2015~2019년/2020~2024년 호주-주요 시장 국방 지출 비교

## 바. 군사장비 수입 급증

-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2018년에 군용장비를 수입하는 데 누계 약 67억 9,000만 미국 달러를 지출하였다. 주요 주달품목으로는 F-35A, MH-60R Seahawk Romeo 해상전투헬기, AIM 9X-2 Sidewinder 유도탄, 원자력공격잠수함, 수상전투함, 수상함정, 각종 장갑차량 등이 있었다.
- 호주 국방부는 군 전력 강화를 확고한 목표로 규정한 바 있으며, 이에 2014~2018년에 군사장비 조달이 활성화되었다. 규모상 2017년에 세계 4위의 무기 구매국이었던 호주는 2018년에 방산 수입국 세계 2위로 도약하였으며, BAE Systems와 체결한 호위함 관련 계약과 Naval Group과 체결한 잠수함 계약, 그리고 고액의 통합공격전투기 대금 지불이 그러한 규모 증대의 배경이 되었다.
- 호주 정부는 수출 촉진 차원에서 국내 업체가 수출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력할 DEU(Defense Export Unit)를 설립하였다. 또한 국내 기업이 외국의 해외 공급망과 해외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AIC(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계획이 개발되었다.

## 사. 국토안보 시장 규모 및 전망

### - 전망 기간 동안 호주 국토안보 시장 연 평균 성장률 2.06% 예상

- 2024년 국토안보 지출 68억 호주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통화를 기준으로 국토안보 예산은 2019년 기준 53억 달러이며, 이전까지 연 평균 성장률 -3.33%를 기록하였다. 전망 기간에는 호주 국토안보 예산이 연 평균 성장률 2.06%로 증가하여 2024년에 68억 호주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주는 국경 및 사이버보안 관련 신기술을 획득할 계획이며 호주 정부의 국토안보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는 전망 기간 동안 국토안보에 누계 225억 3,000만 미국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편성 분야는 국경보호, 사이버보안, 조직범죄 방지, 해상 방위 등이 될 것이다.

## 아. 국방지출 관련 주요 이슈

- ❖ **[Land 400 Phase 3: 보병전투장갑차]** 2018년 8월, 호주 정부는 '60년대 도입된 M113 기갑수송차량을 교체하는 467대, 150억 호주달러 규모의 보병전투장갑차(Infantry Fighting Vehicle, IFV) 교체 사업의 입찰요청서를 공개하였다. 2019년 9월, 1차 평가 후 2개의 최종 후보로 한화디펜스의 Redback IFV와 Rheinmetall사의 Lynx IFV를 선정하였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22년 완료 예정이다.
- ❖ 현재는 2단계 절차인 위험경감평가(Risk Mitigation Activity)가 진행 중이며 본 절차는 '21년 4분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다. 호주군은 위험경감 평가를 통해서 최종 후보 제안 사항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최종 후보군에 대한 시험 평가 실시를 수행 할 예정이다. 시험 평가는 차량 성능, 살상력, 생존력, 통합성 등을 평가하며 52주 소요된다.
- ❖ 호주 국방부는 주요 선정요소로 알려진 AIC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최종 후보업체가 호주 각지를 로드쇼 형태로 방문하는 AIC 로드쇼를 3월부터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로드쇼가 한때 중단되었으나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하고 있다.
- ❖ **[호주-프랑스 잠수함 계약 관련 355억 미국 달러 규모 기본협정]** 2019년 2월 25일, 호주 국영 조선사인 ASC(Australian Submarine Corporation)는 Shortfin Barracuda 블록1A 디젤전기추진 잠수함(SSK) 12척 계약에 관련된 355억 미국 달러 규모의 기본협정을 프랑스 국영 잠수함 건조업체인 Naval Group과 체결하였다. Shortfin Barracuda는 Barracuda급 원자력공격잠수함의 디젤전기추진식 파생형으로서, 호주 해군의 SEA 100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Attack급으로 명명되었다. 이 사업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자본투자 사업이다.
- ❖ 아울러 기본협정에서는 자원 및 인재풀의 공동운동을 통해 호주측 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호주 국산 잠수함 사업 역량을 확충하고, 직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ASC에서 수행할 용역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에 Naval Group 호주지사는 현지 안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Naval Group으로 하여금 ASC에서 운영 중인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을 것이다.
- ❖ 2016년 12월, 프랑스와 호주가 공격잠수함 12척 건조 관련 정부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Naval Group은 2016년에 체결된 3억 6,100만 미국 달러 규모의 설계시공계약에 따라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17년,

전략협력협정 관련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18년 9월까지의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결함보증기간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의견차와 생산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 전략협력협정이 수차례 연기되었다.

- ▶ 전략협력협정의 조건에 따르면 Attack급 잠수함 12척과 특수 부품은 애들레이드에서 ASC가 제작할 것이다. 초도함 건조공정은 2022년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품은 2030년 중반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호주 해군에서 운용 중인 Collins급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전력의 내용수명을 연장하고 Collins급 잠수함 대다수를 대상으로 개량 및 분해수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 ▶ Lockheed Martin 호주지사가 전투체계 설계 시에 전투체계 통합사업자로서 Naval Group 및 호주 국방부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에 현지 인력 투입을 통해 호주 국내산업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 ▶ **[ASC Shipbuilding과 Hunter급 호위함 9척 납품계약 체결]** 2018년 12월 14일, 호주 정부는 호주 해군 Sea 5000 사업에 따라 Hunter급 호위함 조달 관련 260억 미국 달러 계약을 BAE Systems와 체결하였다. 해당 계약은 BAE Systems가 2018년에 호주 정부로부터 인수하여 자회사로 삼은 ASC Shipbuilding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Hunter급 호위함 계약은 호주의 자국 역량 육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호주 해군은 Hunter급 호위함 9척을 인수할 계획이며, 이들 호위함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 소재한 오스본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Hunter급 호위함 건조는 2020년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도함 실전배치는 2025~2027년으로 예상된다. BAE Systems에서 건조할 Hunter급 호위함은 1996년부터 실전배치되기 시작한 Anzac급 호위함을 대체하여 호주의 향후 국방태세의 중추에 자리매김할 것이다. Hunter급 호위함을 통해 호주 해군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국면에서 긴요한 억제력과 살상력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Hunter급 호위함은 플랫폼 자체로 내구성과 항속거리가 뛰어나 단독으로든 기동전대 단위로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10] BAE Systems사의 Hunter급 호위함

- ❖ Hunter급에는 고성능 무장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Mk 45 Mod 4 62구경 함포체계와 함미부에 탑재될 Mk 41 수직발사체계가 포함된다. 또한 Hunter급 호위함에는 SM2 유도탄, MU90 어뢰, ESSM(Evolved SeaSparrow Missiles) 유도탄도 탑재될 수 있다. Hunter급 호위함에는 기타 개량형 대함유도탄과 Nulka 유인체 발사체계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Aegis 전투체계가 탑재되면 잠수함, 항공기, 함정을 추적·탐지할 수 있게 되어 Hunter급의 화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 ❖ Hunter급의 함정센서체계는 전자광학센서, CEAFAAR2 위상배열 레이더, Thales S2087 예인음탐기, Ultra S2150 선체 고정형 음탐기, 가변심도음탐기(VDS) 체계로 구성될 것이다.
- ❖ Hunter급 호위함 관련 계약은 호주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상함 사업이다. 이에 총 사업기간 동안 호주 방산 공급망 전반과 BAE Systems 사내에서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1,000개는 생산직일 것으로 추정된다.
- ❖ **[사이버공간 및 우주공간 관련 보안활동에 국방예산 중 큰 비중 편성]** 호주는 국가행위자와 비국가행위자로부터 비롯되는 사이버공간 위협, 우주공간 위협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리를 초월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행위자는 상호연결된 시스템을 전용하는 방식으로 최첨단 도구를 활용하여 비밀정보를 캐낼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호주 내 핵심 인프라, 금융서비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2015년, ASD(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에서는 비정부 부문과 정부기관을 모두 포함하여 약 1,200건의 사이버범죄 사건을 적발하였다. 호주군은 네트워크 체계 지원과 파병부대와와의

통신에 우주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국가가 인공위성을 표적으로 삼아 체계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적성국가가 우주공간에 기반한 체계를 해킹하여 민감성 데이터 및 화상에 접근하는 등 정보 수집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향후 20년을 대비한 전략계획 수립 시에 국방 차원의 우주공간 감시능력과 상황인식력을 강화하는 등 우주공간에 기반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 육·해·공군과 더불어 군지원, 대테러, ASIO(Australian Security Intelligence Organisation), 지휘통제, AUSTINT(Australian Intelligence Corps), 합동작전사령부(JOC)의 작전 지휘·지원, 특수작전부대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아래 그래프에서 “기타”에 속한다. 전망 기간 동안 호주는 전체 예산의 평균 19.4%를 육군에, 20.3%를 공군에, 16.3%를 해군에, 44%를 기타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방산역량 및 정부지원정책<sup>16)17)</sup>

### 가. 개요

- 호주의 방위산업은 해양, 항공우주, 지상, 전자장치 등 주요 부문에 포진되어 있으며 호주 방위군이 사용하는 군용 플랫폼 및 체계 소요를 충족시킨다. 전수명 주기를 지원하는데 전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약 25,000명이 방위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 업체 수는 많지만 활동은 소수의 대규모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업체인 ASC사와 오스탈(Austal)사를 제외하면 이들 대부분은 외국 모회사 소유이다.
- 호주 정부에 따르면 외국 자회사가 전체 방위산업 노동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호주의 조선산업은 중요한 예외로서 국영 ASC사 및 민간이 소유한 오스탈사가 상당한 시장 점유율, 능력, 노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심지어 ASC사까지도 외국 능력 의존도가 높다. 2018년 12월 Sea 5000 호위함 건조사업의 일환으로 이 회사의 조선사업 부문이 BAE 시스템스사로 넘어갔다.

16)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17) 2018-2019 Defence Industry and Innovation Programs Annual Report, 호주 국방부, 2020

## 나. 방위산업역량 계획서

- 호주 정부는 2018년 4월에 새로운 방위산업역량 계획서를 발표했다. 이 계획서는 향후 10년에 걸쳐 국내 산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국가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 계획서를 통해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방위산업에 가용한 상이한 요소들을 통합하고 2018-2019년 사이에 연간 1,700만 AUD(1,300만 달러)를 할당해 국가산업능력((SIC)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가산업능력 사업은 외국 OEM 업체와의 부분적 협력과 재정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해서 특정 분야 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 콜린스(Collins)급 잠수함 정비 및 기술 성능개량
  - 롤링 잠수함 획득을 포함한 지속적인 함정 건조사업
  - 지상전투차량 및 기술 성능개량
  - 능동 및 수동 위상배열 레이더 능력 강화
  - 전자전, 사이버, 정보보안, 노출 관리기술 및 운용 분야의 신호처리능력 첨단화
  - 시험, 평가, 인증, 체계보장
  - 탄약 및 소화기 연구, 설계, 제작
  - 항공우주 플랫폼 심층 정비

## 다. 항공우주 영역

- 호주 항공우주산업은 주로 항공기 구조물 및 구성품 제작과 함께 군 및 민간시장을 위한 고정익, 회전익 항공 플랫폼 조립 및 정비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다수의 호주 업체들이 F-35 전투기사업에 대한 작업분담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데, 국제 고객들이 정보 감시 및 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 및 판매할 수 있는 경항공기 개발업체는 두 개사가 있는데 이들은 깁스에어로(GippsAero)사와 시버드 에이비에이션(Seabird Aviation)사이다.

## 라. 지상 영역

- 호주는 소규모 지상 및 장갑 부문 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국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대 말 호주 업체들은 4x4 방호 군용 차량에 대한 육군 수요에 응했는데, 그 최종 제품인 부시마스터(Bushmaster) 차량은 ADI사(현재 탈레스 오스트레일리아사(Thales Australia))에서 생산하고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General Dynamics Land Systems)사 등과 같은 국제 제작업체들은 호주 방위군(Australian Defence Force, ADF) 및 지역 내 제휴국가들이 운영하는 차량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조직을 설립하였다.
- 병력수송장갑차 및 방호 기동차량에 사용할 수 있는 포탑 및 무기 설치대도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플랫 마운트(Platt Mounts)사는 다양한 대지뢰 매복방호(Mine-Resistant Ambush Protected, MRAP) 차량 및 병력수송장갑차에 방호된 무장장치를 제공하는 계약을 수주함으로써 영국 및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호주 업체들은 또한 재공유차량과 같은 차량을 개조하고, 트레일러도 설계, 제작 및 통합을 한다.
- 탈레스(Thales)사가 소유한 시드니 인근의 무기공장인 라이트고우(Lithgow)사는 호주의 유일한 군사용 소화기 제작업체이다. 1990년대 대형 총격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정된 국내 총기소유 금지법률로 인해 소화기에 대한 민간시장이 쇠락하였다. 그 결과 호주 정부는 현재 자국의 소화기 제작 및 정비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래 Land 159 사업을 추진할 때 이 공장이 기초가 될 것임을 입증할 것이다.
- 국내 지상부문 능력도 또한 호주 육군이 랜드 400 지상 전투차량 사업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을 획득함으로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조달사업을 통해, 호주 정부는 국내의 제작, 재생, MRO 및 통합작업을 포함한 국내 활동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 마. 해상 영역

- ASC사, 오스탈(Austal)사, BAE 시스템스사, 포르각스(Forgacs)사(현재 시브멕(Civmec)사의 자회사임) 등 4개의 주요한 조선사가 호주 조선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선사들은 원래 용량보다 적게 운용되고 있다. 장기적인 조선부문 기술 기반

유지 및 지속적인 수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선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해양 서비스 활동도 또한 다수의 많은 외국 소유 업체들, 특히 세르코(Sercos)사가 장악하고 있다.

- 2015년 8월, 호주 정부는 미래 해군 함정건조 시설을 남 호주 지역에 집중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주에 있는 조선소들은 하청계약을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 발표된 롤링 건조 계획에는 서 호주에서 Sea 1180 연안초계함정을 부분적으로 건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호위함 사업은 2020년대 초에 건조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네이벌 그룹(Naval Group)과 협력하여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Sea 1000 사업은 2030년대 초에 애들레이드(Adelaide) 지역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들 사업을 통해 국내 산업에 도움을 주고 생산성에 관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2017년에 ASC사를 조선업체, 기반시설 업체, 잠수함 지속성 유지 업체 등 3개의 국영업체로 분할하였다. 미래 호위함 Sea 5000사업의 일환으로 이들 함정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BAE 시스템스(BAE Systems)사가 ASC사의 조선사업 부문 소유권을 인수하였다. 호위함 건조를 위한 주 계약은 2018년 말에 체결되었다.
- 지역 내 고객들은 플랫폼을 구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저비용 대안을 발견한 다음 자체 해군 능력을 기초로 이를 통합하여 건조작업을 시도함에 따라, 해양산업 부문 수출 수주도 또한 어렵다. 예외 사례로 오스탈(Austal) 조선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수출 계약을 확보하고 있다.

## 바. C4I/기타 영역

- 호주는 국내 용도로 전자광학장치로부터 위상배열 레이더 체계, 무전기, 지휘통제 계획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C4ISR 체계를 개발하였다.
- CEA 테크놀로지스(CEA Technologies)사 및 바렛 커뮤니케이션즈(Barrett Communications)사 등과 같은 업체들은 각각 레이더 및 무전기에 대한 상당한 수출 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다. 호주 정부가 노출특징 관리 및 대응책 등과 같은 분야의 산업 능력을 개선하려고 함에 따라, 호주 정부는 전자전 체계를 PIC 품목으로 강조했다. 호주 방위군(ADF)은 국내 능력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및 체계를 동맹국과 통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 제작업체로부터 구매를 계속하고 있다.

- 호주가 노스롭그루먼사(Northrop Grumman)의 MQ-4C 트리톤(Triton) 무인항공기를 조만간 조달하게 됨에 따라, 민첨 에이비에이션(Mincham Aviation)사와 같은 일부 업체들이 더욱 광범위한 미국 제품의 조달을 위한 작업량을 받게 되었다. 또한 다수의 호주 업체들이 록히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 II JSF 전투기용 전자전 및 레이더 체계에 대한 작업을 수행해왔다.
- 2017년 7월 미 해군은 호주 공군(RAAF)이 AN/ALQ-249 차세대 재머 중간대역 인크리먼트1(Jammer Mid-Band Increment 1) 사업에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사업에서 호주 업체가 일부 참여하거나 적어도 미래에 호주에서 이 체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 사. 정부지원정책

- 호주 국방부는 7월 8일 방위산업 혁신 및 역량 개발 사업의 진행현황 및 성과를 담은 「2018-19 방산혁신사업 연간 보고서(Defence Industry and Innovation Programs Annual Report)」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2018-19 기간 동안 연구혁신협약(Research and Innovation contracts)을 통해 1.2억 호주달러, 국내산업역량우선기금(Sovereign Industrial Capability Priority funding)을 통해 1500만 호주달러, 역량개선보조금(Capability Improvement grants)을 통해 230만 호주달러를 자국기업에 지원했다고 발표하였다.
- 대부분의 지원금은 「2016 방위산업 정책서(Defence Industry Policy Statement)」를 근거로 2016-2017회계연도에서 2025-2026 회계연도까지 10년간 배정된 혁신 및 역량사업 예산(16억 호주달러)을 활용한 것이다. 2016 방위산업 정책서에는 호주 방위군(Australian Defence Forces)의 전투력을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호주 방위산업역량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산업역량센터(Centre for Defence Industry Capability, CDIC), 차세대기술기금(Next Generation Technologies Fund, NGTF), 국방 혁신 허브(Defence Innovation Hub) 등의 육성조직(기금)을 설립했다.
- 방위산업역량센터(CDIC)는 방산분야에 종사하거나 진입을 원하는 호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19 회계연도에는 RUAG Australia사를 지원하여 다중성분제조(multi-component manufacture) 및 미래 공학(Future Engineering) 기술을 향상시켰다.

- ❖ 차세대기술기금(NGTF)은 신형 또는 미래기술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 무인체계, 급조폭팔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사이버 위협, 신소재, 양자기술, 센서 그리고 지향성 에너지 무기(directed energy weapon)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 국방혁신허브(DIH)는 산·학·연 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2019 회계연도에는 무인플랫폼(Ocius Technology사), 소형 위성(Inovor Technologies사), 탄소 섬유 소재의 회전익용 바퀴(Carbon Revolution사), 디지털 쌍안경(Thomas Global Systems사) 등의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 ❖ 이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산업역량센터(CDIC), 차세대기술기금(NGTF)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업들이 이미 초기부터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수출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방위산업 일자리 창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방위산업 역량 강화 및 방위력 개선으로 이어지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5. 수출 장애요인<sup>18)19)</sup>

### 가. 호주방위산업 참여도(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AIC)

- ❖ 호주 정부는 AIC(Australian Industry Capability) 계획을 통해 자국 산업의 참여 및 개발을 보호하고 있다. AIC 제도는 2016년 DIPS(Defense & Industry Policy Statement)의 핵심사항을 충족한다는 목표를 띠고 있다. AIC 제도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업체가 국내·외 방산사업에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조성
  - OEM 업체, 해외 계약자, 호주 현지 자회사 주도의 비용효율적인 지원 확보
  -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AIC 제도의 목표는 호주 업체에게는 방산사업 입찰 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해외 OEM 업체에게는 투자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절충교역 제도처럼 작용한다. 현재 2천만 호주달러 이상 규모의 조달 사업은 AIC를 통한 호주 방산 업계의 참여가 의무화 되고 있다.

18) Jane's Market Report, Jane's, 2020

19) 공식 보도자료, 호주 국방부, 2020

- 2017년 6월 국방부는 언론 발표를 통해 AIC 제도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해외업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호주 방산 업계의 참여도를 극대화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기술 이전 등으로 업계 역량 강화
  - 호주 방산 중소기업 및 토착(Indigenous) 기업의 참여 극대화
  - 호주 방산 업계에 능력, 지식, 시스템, 기술 및 인프라를 구축 또는 이전
  - 호주 기업에게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 제공

## 나. 강화된 외국인 투자제도 개혁안 발표

- 호주 정부는 2020년 6월 외국인 투자제도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감한 국가안보사업(sensitive national security business)"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호주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체계가 적용된다.
- 이번 조치의 목적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영향으로 불안정하게 된 국가안보분야 업체, 특히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도, 일본, 뉴질랜드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유사한 개혁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 이번 조치에 따라 "국가안보시험(national security test)"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제안된 모든 획득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호주 정부의 검토가 의무화 된다. 이러한 평가는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민감한 분야에 투자제안서를 제출하려하거나 기존에 투자 중인 사업 내에서 민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에 착수할 의향이 있는 경우 호주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적용 된다.
- 기존에는 호주정부에 통보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차원에서 호주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이외에, 호주 정부는 외국인 투자 사업에 국가안보 위협이 명백히 있을 경우, 투자철회 요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 정부는 "민감한 국가안보사업"에 대한 정의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한 최종 확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방/국가안보 관련 제품, 서비스, 기술의 제조 또는 공급에 관련된 사업 또는 국방/국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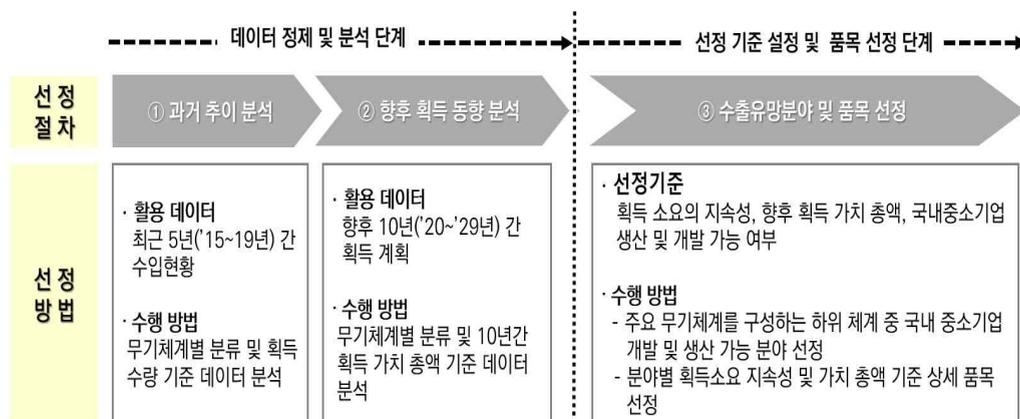
보 공급망(supply chain)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사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기 시행 중인 제도 하에서는 방산분야를 포함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이 2억 7,500만 호주달러(1억 9,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투자금액에 대한 기준만 적용할 경우 국가안보 상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활동을 식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발표한 투자 제도 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제도는 법률에 의해 뒷받침 될 예정인데, 해당 법률은 7월에 초안이 발표되고 2021년 1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 6. 수출 유망 품목<sup>20)</sup>

### 가.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 호주는 방위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최근 무기 수입 현황을 통한 최근 수입 동향 및 향후 10년('20년~'29년) 간 획득 계획 분석을 통해 주요 수입 체계 분야를 확인할 수 있다.
- 본 절에서는 과거 수입현황과 획득계획을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수입 체계 분야 중 국내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품목에 대한 상세 획득 계획을 살펴보았다.



[그림 2-11] 수출유망품목 선정 절차 및 기준

20)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Arms Transfer Database([www.sipri.org](http://www.sipri.org))

## 가. 호주 무기 수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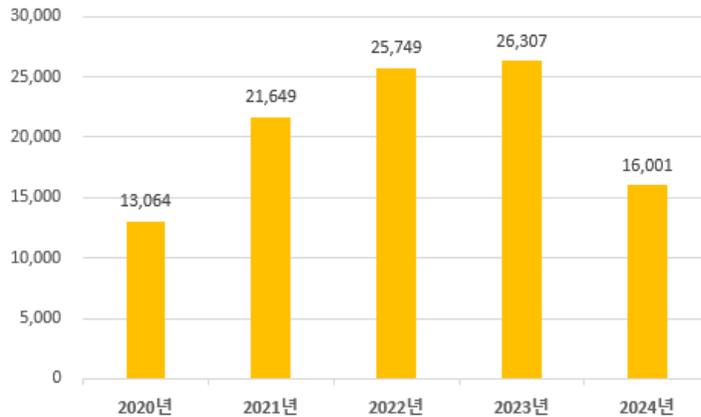
- 호주의 최근 5년(2015년~2019년)간의 무기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동 기간 내 수요가 꾸준히 발생한 무기체계로 항공기, 센서, 미사일, 함정 등을 들 수 있다.

[표 2-7] 호주 2015~2019년 체계별 수입 현황 (SIPRI 자료, 단위:UNIT)

체계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계
항공기	814	768	919	787	1294	4,582
기갑차량	0	12	0	0	4	16
화포	2	0	0	0	0	2
엔진	20	14	40	31	14	119
미사일	96	200	124	116	33	569
함정용 무기	14	14	28	42	7	104
센서	38	17	62	81	27	225
함정	479	0	499	499	0	1477
기타	0	0	0	20	20	40
<b>총합계</b>	<b>1,464</b>	<b>1,025</b>	<b>1,671</b>	<b>1,575</b>	<b>1,399</b>	<b>7,133</b>

### 1) 항공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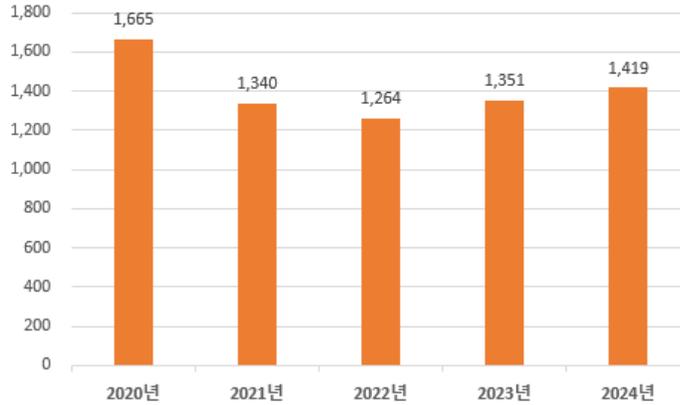
- 호주는 광활한 영토를 수호하고 역내 협력국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호주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호주 공군은 NACC(New Air Combat Capability) 사업의 일환으로 작전반경이 600여 해리에 달하는 합동타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 JSF)를 조달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호주 공군은 F-35 Lightning II 58대 추가 획득을 위해 124억 미국 달러 계약을 Lockheed Martin과 체결하였으며, 이로서 총 발주량은 2009년 초도 조달수량인 F-35 14대를 포함한 72대이다.
- 다목적 항공기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24년 160억 미국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림 2-12] 호주 다목적 항공기 시장 규모 전망 (단위: 100만 USD)

## 2) 센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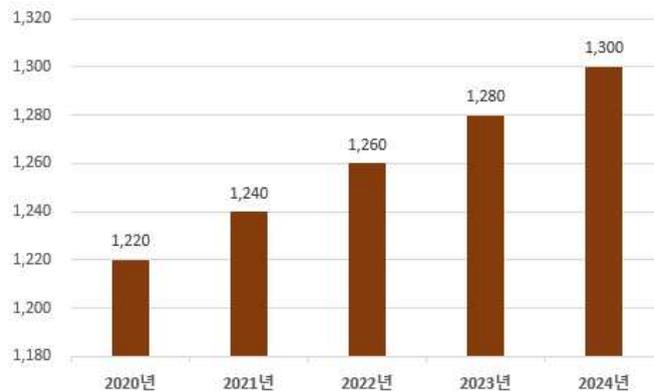
- 첨단 지상기반 C4ISR 기술을 군용 구조물에 통합시키는 것은 호주군의 중점 분야 중 하나이며 10개년 네트워크중심전(NCW) 역량 확보계획에 명시되어있다. 2005년, 호주는 개정 네트워크중심전 로드맵을 발표하여 2020년까지 차세대 합동작전개념을 바탕으로 이음매 없는 전력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 단계를 규정하였다.
- 호주의 C4ISR 관련 국방지출 중 일부는 추가적인 군용 IT 체계, 통신장치, 감시장치를 조달하는 명목으로 투입될 것이다. 이를 통해 네트워킹, 정보 수집, 정보 처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군용 IT에 관련하여 호주의 국방지출은 국가안보 우선사항에 해당하는 사이버공간 내 공격 능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호주는 2009년에 CSOC(CyberSecurity Operations Center)를 창설하였다. 지상기반 C4ISR 부문에서 두 번째로 가장 지출 규모가 큰 분야는 군용통신 분야로, 호주 국방부에서는 지상군이 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성 기반 보안통신 체계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중심으로 지상기반 군용 C4ISR 투자의 근간을 이룰 주요 사업 2가지로는 JP 2072 전장통신체계 사업과 JP 2089 전술정보교환 사업이 있다.
- 대표적인 통신 관련 사업으로는 여러 단계에 걸쳐 호주군 지상군용 통합형 전장통신체계를 구축하는 JP 2072 사업과 실시간, 준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전술정보를 생성, 처리, 인원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JP 2089 전술정보교환 사업이 있다. JP 2089 사업에서 호주군은 조직화된 전술정보교환 환경을 활용하고 특정 구형 플랫폼에 전술정보교환 역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기타 지출 대상 사업으로는 AIR 5428 조종사 훈련체계 사업, JORN사업, 국립 ACCS(Australian Cyber Security Centre) 관련 지출사업 등이 있다. 전망 기간 동안 호주 C4ISR 시장의 규모는 누계 85억 9,700백만 미국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림 2-13] 호주 C4ISR 시장 규모 전망 (단위: 100만 USD)

### 3) 함정

- 해상보안 강화 차원에서 호주군은 이미 고도로 효율적인 해군 호위함 전력을 구축해 둔 상태이다. 현재 호주 해군에는 호위함 8척이 편성되어 있으며, 호주 정부는 해군 전력 확장을 위해 첨단 대잠호위함 생산 관련 260억 미국 달러(350억 호주 달러) 계약을 BAE Systems와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납품될 Hunter급 호위함에는 CEA Technologies의 CEA FAR 위상 배열 레이더와 Saab 호주지사가 공급할 인터페이스, Lockheed Martin이 생산할 Aegis 전투체계가 탑재될 예정이다.
- 호위함 시장의 전체 규모는 2019년에 12억 미국 달러였으며 연 평균 성장률 2.02%, 2024년에 13억 미국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전망 기간 동안 호주 호위함 시장의 규모는 누계 75억 미국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림 2-14] 호주 호위함 시장 규모 전망 (단위: 100만 USD)

## 나. 향후 10년 간 획득 계획

- 호주의 향후 10년 ('20년~'29년) 간 획득소요 중 진입 기회가 존재하는 계약자가 미확정되거나 공표되지 않은 예상 획득계획만을 아래 표와 같이 무기체계별로 분류하였다.
- 분석 결과, 중소벤처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정보통신체계, EO/IR, UAV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8] 호주 2020~2029년 체계별 획득 계획 (Jane's Market Forecast, 단위:Mil\$)

체계구분	확정획득계획	예상획득계획	총 계
기갑차량	7618.58	0	7618.58
항공기	5820.52	488.45	6308.97
정보통신체계	4528.38	1490.84	6019.22
지휘통제체계	3399.37	424.73	3824.1
레이더	980.1	581.03	1561.13
유도무기	936.06	546.99	1483.05
EO/IR	714.02	190	904.02
함정	824.39	0	824.39
음파탐지	387.39	95.31	482.7
UAV	284.92	100.05	384.97
UGV	0	48.86	48.86
USV	1.78	44.78	46.56
시뮬레이션	0	36.67	36.67
<b>총합계</b>	<b>25,495.51</b>	<b>4,047.71</b>	<b>29,543.22</b>

\* 확정획득계획 : 구매국 또는 수출국 정부가 공표한 획득소요로 계약자가 미확정인 계획  
 예상획득계획 : 기존 보유 체계의 수명주기 또는 각종 정보처를 활용한 향후 예상되는 획득계획

### 1) 정보통신체계 분야

[표 2-9] 호주 '20~'29년 정보통신분야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Mil\$)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b>확정획득계획</b>		
JP 2072 Battle Communications System(L) Phase 4	514.76	호주 지상전력을 위한 전장 통합통신 체계로서 휴대가능 전장관리 정보체계(BMS)의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
Land 1771 Enhanced Geospatial System	68.86	합동군의 전투계획수립, 전장관리 및 표적선정을 지원할 지형공간 분석 및 관련 정보 수집, 송출 기술 소요
ISR/SituAware Datalink	16.46	해상초계기, 전투기, UAV, 지상통제장비 등과 연계한 Datalink 예상 소요
<b>예상획득계획</b>		
Artificial Intelligence	393.02	인공 지능 및 관련 알고리즘 정의에 대한 연구개발 소요
Cloud Computing for Australian Secret Intelligence Service	145.8	통신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의 기존 군사 IT 인프라 개선 예상 소요

### 2) EO/IR 분야

[표 2-10] 호주 '20~'29년 EO/IR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Mil\$)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b>확정획득계획</b>		
Multi-spectral Weapon Sight	67.75	다중분광 기술을 사용한 조준경으로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LWIR(장파장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와 SWIR 열화상 카메라, CCD(전하결합소자) 센서, 영상 증폭관 등을 조합한 이중센서 장착을 요구함
Laser Warning System	65.86	플랫폼에 피격된 레이저를 감지하고 발사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에 대한 소요
Driver's Night Vision System	17.54	LWIR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운전자용 야간투시체계로서 전용 디스플레이와 가시선을 조절할 수 있는 조종장치를 포함한 통합체계 소요
<b>예상획득계획</b>		
ROWS Sight(Light)	46.7	LWIR 열화상 카메라, 고화질 CCD TV 카메라, 레이저 기반 사거리 측정기를 조합한 경화기용 원격 조준기에 대한 소요
ROWS Sight(Heavy)	27.94	LWIR 열화상 카메라, 고화질 CCD TV 카메라, 레이저 기반 사거리 측정기를 조합한 25mm/30mm 구경이상 화기용 원격 조준기에 대한 소요

### 3) UAV 분야

[표 2-11] 호주 '20~'29년 UAV 획득계획 중 중소벤처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항목 (단위: Mil\$)

장비명	사업 가치 (Mil\$)	비고
<b>확정획득계획</b>		
Australia Tier 1 UAV - tranche 2	18.69	정찰 임무용 소형 UAV를 위한 소요로서 tranche 1의 경우 AeroVironment사의 WASP AE가 선정되었음
Australian Navy Fixed-wing TUAV	5.17	해상초계용 고정익 UAV에 대한 소요가 2020년 전력구조계획에 발표되었음
<b>예상획득계획</b>		
Naval VTOL UAV	5.46	기존 운용중인 S-100를 교체할 해상 작전용 수직이착륙 UAV 소요 예상 *S-100 : 적재하중 100kg, 최고 사속 240km/h인 회전익 UAV
Army Tactical UAV	1.45	LWIR 열화상 카메라, 고화질 CCD TV 카메라, 레이저 기반 사거리 측정기를 조합한 25mm/30mm 구경이상 화기용 원격 조준기에 대한 소요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3장  
시장진입 전략

# 제 3 장

## 시장진출 전략

제 1 절 SWOT 분석

---

제 2 절 시장진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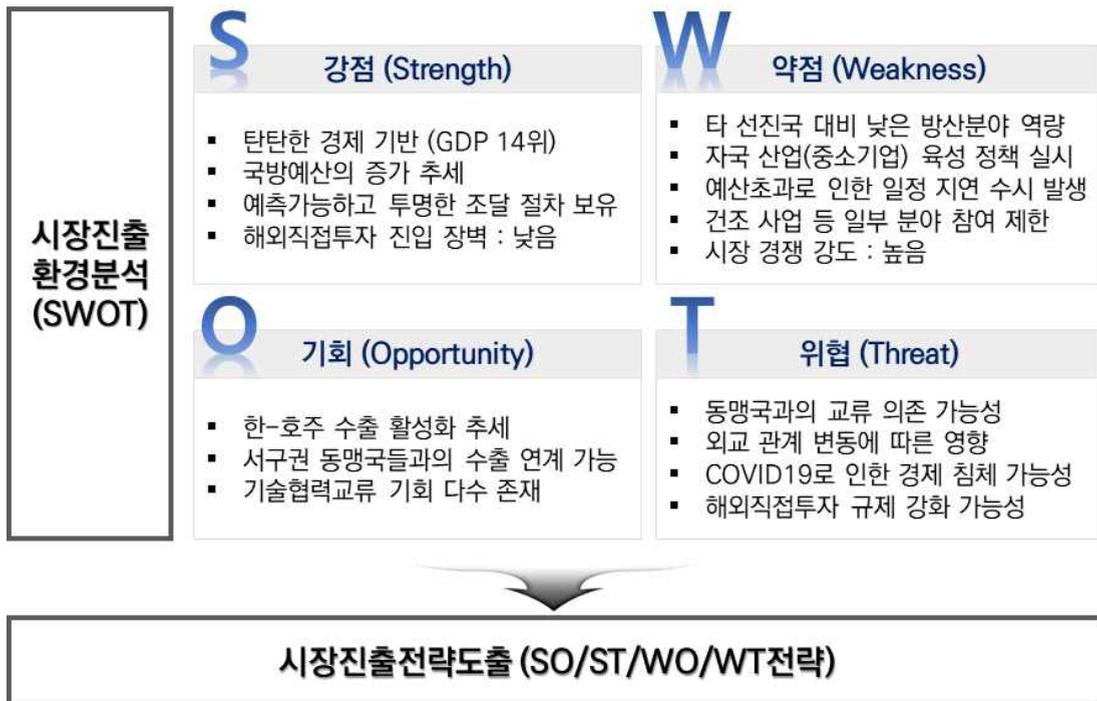
---

## 제 1 절 SWOT 분석

### 1. 분석 개요

- 본 절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보았던 호주의 경제, 정책, 예산, 조달과정, 경쟁 환경 등을 종합하여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춰 강점, 약점, 기회, 위협으로 시장 환경 특성을 구분하였다.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장 환경 특성을 반영 도출한 시장 진출 전략은 다음 절에서 다뤄보겠다.

[그림 3-1] 호주 방산시장 환경 SWOT 분석



## 2. 강점(Strengths)

- ❖ **[GDP 14위의 경제대국]** 호주는 1차 산업 (농업, 광업) 및 3차 산업(금융, 서비스) 비중이 큰 전형적인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0년 IMF 자료 기준 총 GDP 세계 14위, 1인당 GDP 세계 15위로 경제 강국이다. 또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며 경제 강국이 준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존재감을 발휘한다. 호주의 경제력은 국방 예산 증가를 뒷받침 하고 있다.
- ❖ **[국방예산의 증가 추세]** 군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방예산은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연평균 2.39%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8%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 **[투명한 조달 절차]** 호주는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연속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조달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조달 과정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공개하며, 의사결정 절차 또한 국방조달정책매뉴얼을 비롯한 관련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 ❖ **[낮은 진입장벽]** 호주는 개방형 입찰 프로세스에 따라 공급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 3. 약점(Weaknesses)

- ❖ **[약한 방위산업 생산 기반]** 방위산업 역량이 제한적이며 필요한 방산제품을 구하기 위해 해외 공급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호주 정부는 자체 국방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해 호주 방산역량 제도를 통한 현지업체의 참여를 필수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현지업체의 기술력과 생산인력의 숙련도가 문제되고 있다.
- ❖ **[자국 육성 정책 실시]**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호주방산역량 제도에 의한 현지 기업 참여 의무화 및 각종 국방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자국 방산기업을 육성 보호하고 있다.
- ❖ **[조달 지연 수시 발생]** 호주의 국방예산도 여타 선진국과 같이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방예산지출은 비교적 호주국민의 지지를 받는 편이지만 더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가 발생하면 종종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있으며 이는 조달 사업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 육군이 당시 운용했던 M198 155mm 곡사포 교체를 위해 2007년 Land 17 사업을 진행하여 최종 후보로 K9 자주포가 선정되었으나 2012년 예산문제로 중단됨

- ❖ **[일부 분야 참여 제한]** 호주는 2017년 5월 함정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Adelaide, South Australia, Perth, Wesern Australia 지역에 건조 시설을 신규 구축하거나 및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함정건조계획(Naval Shipbuilding Plan)을 발표했다. 호주는 국영 함정 건조사인 ASC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2018년 헌터급 호위함 사업자로 선정된 BAE Systems사의 지회사로 편입시켰으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소형 함정의 경우 자국 건조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높은 시장 경쟁 강도]** 최근 5년간 미국이 시장을 장악했었으며, BAE Systems, Raytheon, Thales,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Boeing 등 호주 내 진입해있는 글로벌 방산기업의 자회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개방된 획득 절차에 시장이 언제나 열려있어, 시장 경쟁 강도가 높다.

#### 4. 기회(Opportunities)

- ❖ **[한-호주 수출 활성화 추세]** 호주는 전통적으로 미국 또는 NATO 동맹국의 무기체계를 선호했으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 변화와 한-호주간 지속적인 방산협력으로 인해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보병전투장갑차, 자주포, 훈련기 등 사업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서구권 동맹국들과의 수출 연계 가능]** 호주는 ANZUS 조약, Five Eyes, 4자 회담(호주, 미국, 일본, 인도) 등을 통해 미국과 긴밀한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호주는 영연방에 소속된 국가로서 영국뿐만 아니라, NATO 회원국들과도 긴밀한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호주시장을 통해 한국기업의 기술력, 대규모 국제사업 추진 역량, 문화적 차이 및 상호운용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서구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 ❖ **[기술협력교류 기회 다수 존재]** 한국과 호주는 2019년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호주 국방과학기술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MOU 체결 당시 양국은 해상 로봇에 대한 공동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기술협력분야는 방산협력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 5. 위협(Threats)

- ❖ **[동맹국과의 교류 의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있어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의 수입도 주로 미국 또는 NATO 동맹국으로부터 했었다.
- ❖ **[외교관계의 변화]** 호주와 일본은 같은 4자 회담 국가로서 긴밀한 외교 및 군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한-일간 무역 갈등이 생기면서 일부 호주 언론은 각각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의 갈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호주는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중국 등 주변 강국과의 외교활동에 활발한 편이기 때문에 외교관계 변화로 인한 영향이 존재한다.
- ❖ **[경제 침체 가능성]** 호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에 정부지출을 늘리면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부 지출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경제 침체 및 이에 따른 국방지출 감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 ❖ **[해외직접투자 규제 강화]** 2020년 6월 새로운 제도 조입에 따라 "민감한 국가안보사업 (sensitive national security business)"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호주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체계가 적용된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 하에서는 방산분야를 포함한 민감한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금액이 2억 7,500만 호주달러(1억 9,200만 미국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FIRB)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새로운 제도하에는 민감한 분야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승인을 받아야한다.

## 제 2 절 시장 진출 전략

### 1. SO 전략 (강점-기회 전략)

#### 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기업 인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

상대적으로 낮은 해외직접투자 진입장벽 그리고 방산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은 호주 방산중소기업을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만든다. 호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해외인수합병법 (Foreign Acquisition Takeover Act 1975)에 명시된 사항을 충족해야하며 최근 개정된 외국인 투자제도 개혁안에 따라 민감한 국가안보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인투자검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호주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평균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은 경쟁력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무인체계, 급조폭팔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s), 사이버 위협, 신소재, 양자기술, 센서 그리고 지향성 에너지 무기(directed energy weapon) 등 미래기술연구에 대한 지원받는 기업, 그리고 국방혁신허브에서 지원하는 산·학·연 프로젝트의 참가중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시장진입 그리고 자체 보유 기술력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전략이 될 수 있다.

- **[기업 인수 사례]** 2012년 중반 이후 이루어진 인수 활동에는 노스롭그루먼사의 사이버 보안업체 M5 네트워크 시큐리티(Network Security)사 인수, 라일메탈사의 방산 시뮬레이션 업체 시덱(Sydac)사 인수, ITT 엑셀리스(Exelis)사(현재 Harris사)의 네트워크 체계 업체 C4사 인수 등이 있다.
- 서비스 기반 업체도 인수 거래의 표적이 되었다. 세르코(Serco)사는 DMS 매리타임(Maritime) 합작투자업체의 파트너사인 P&O 매리타임 서비스즈(Maritime Services)사 지분을 인수했다. RUAG사의 로즈뱅크 엔지니어링(Rosebank Engineering)사 인수, 노스롭그루먼사의 콰타스 디펜스 서비스즈(Qantas Defence Services)사 인수도 여기에 포함된다. 2017년 7월 라인메탈사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의 차량 구성품 업체인 수파속(Supashock)사의 지분 49%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는 L3 테크놀로지스사가 사이버 보안업체인 애지머스 시뮬러티(Azimuth Security)사와 소프트 웨어 업체인 린치핀 랩스(Linchpin Labs)사를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 나.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

- 한국과 호주는 2019년 국방, 연구, 개발, 시험 및 평가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여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방과학연구소와 호주 국방과학기술국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까지 교류가 활발한 것은 아니나, 보병전투장갑차와 자주포사업과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수출 건과 관련한 실무 교류 중 기술협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양국이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 기술교류 또는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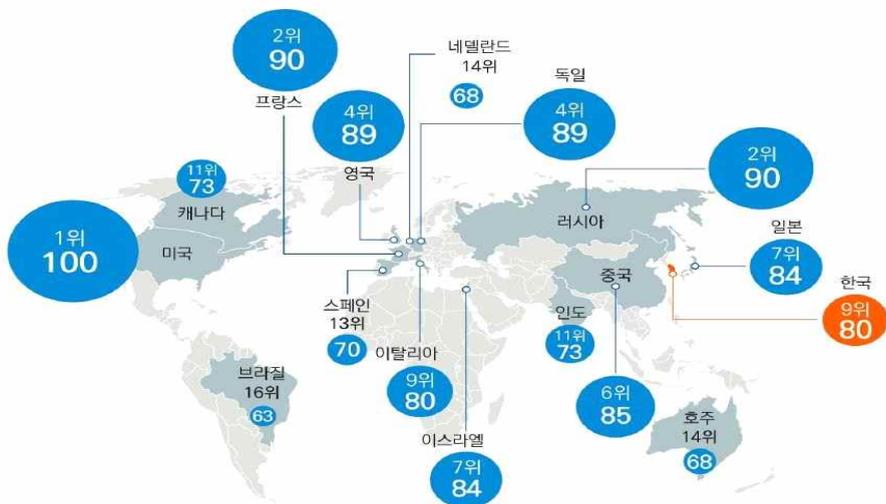
## 2. ST 전략 (강점-위협 전략)

### 가. 기술력 우위 분야 중심의 시장 진출

- 호주는 군 현대화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육해공 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국방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획득사업을 진행 예정이다. 공격적인 국방 지출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달절차 덕분에 호주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게도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
- 하지만, 호주에는 다수의 글로벌 방산업체가 진출해있어 경쟁 강도가 높고, 호주는 미국, 영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주기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상호운용성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제 진출 가능 분야는 제한 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방산업체를 상대로 기술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상호운용성이 검증된 분야 식별이 필요하다.
- [기술력 수준 조사를 통한 진입 분야 선정]**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간한 2018년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1위 미국에 비해 80% 수준으로 9위이며 호주는 68% 수준이며 14위에 그쳤다.
-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수준은 호주에 비해 전 부분에서 앞섰지만 특히 기동(한국:83, 호주:62), 화력(한국:84, 호주:61), 방호(한국:80, 호주 64) 분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2] 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국가	지휘 통제 통신		감시 정찰		기동		함정		항공 우주		화력		방호		기타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수준	순위
미국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프랑스	89	3	90	2	91	3	91	3	91	2	91	3	90	3	87	4
러시아	86	6	90	2	86	6	91	3	91	2	95	2	92	2	82	6
독일	87	5	90	2	92	2	90	5	85	5	91	3	88	5	88	2
영국	90	2	88	5	88	5	93	2	85	5	88	5	89	4	88	2
중국	85	7	84	7	81	9	88	6	89	4	85	6	86	7	80	7
이스라엘	89	3	88	5	89	4	72	14	80	8	84	7	87	6	84	5
일본	83	8	84	7	84	7	88	6	83	7	82	10	82	8	79	8
이탈리아	80	10	83	9	78	10	79	9	80	8	83	9	78	10	75	11
한국	82	9	78	11	83	8	82	8	77	10	84	7	80	9	76	9
캐나다	78	11	81	10	71	11	74	12	71	12	64	12	70	12	76	9
인도	72	15	69	14	69	12	75	11	76	11	74	11	74	11	72	14
스페인	74	13	71	12	68	13	78	10	70	13	64	12	65	13	72	14
네덜란드	73	14	70	13	62	14	74	12	67	14	62	15	65	13	73	13
호주	76	12	69	14	62	14	72	14	65	16	61	16	64	15	74	12
브라질	66	16	62	16	59	16	65	16	66	15	64	12	58	16	67	16



[그림 3-1] 2018년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

- 호주군의 현대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전 분야에 걸쳐 획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호주 현지에 진출해있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의 경쟁이 예상된다. 상대적 기술력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진출함으로써, 호주군의 소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호주방산역량 제도를 통한 방산역량 기반 수립 및 기술이전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 3. WO 전략 (약점-기회 전략)

#### 가.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진출 후 서구권 국가 수출 교두보 마련

- 해외 무기체계 도입 시 중요 고려 요소 중 하나는 해당 무기체계의 타군 운용 실적이다. 특히, 서구권 국방 선진국의 경우, 군사교리, 조달절차가 유사하고 같은 문화권이면서 정기적인 국방협력 및 교류를 실시하는 국가의 운용실적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무기체계 및 구성품 등은 최근 들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국방 선진국에서 운용한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호주 시장에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진출하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서구권 국가의 수출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진입]** 해외 업체가 선호하는 진입경로로는 호주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업체를 인수하여 해외 OEM 업체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반이 강화되는 데 더불어 현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호주 방위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대표적인 글로벌 방산 업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3] 호주 주요 해외 OEM 업체 및 자회사

업체	국가	설립연도	전략 목표
Thales	프랑스	2006	기술·금융 투자 및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및 해외 수요 충족능력 확보
BAE Systems	영국	1999	초계함정 및 첨단기술 관련 소요 충족
Raytheon	미국	1999	호주 내 센서 및 임무체계 관련 소요 충족
Lockheed Martin	미국	1997	유도탄 소요 충족
EADS	네덜란드	1985	헬기 소요 충족
Boeing	미국	1927	호주 및 뉴질랜드 내 항공기 소요 충족

## 나. 현지기업 참여를 고려한 진입 전략 수립

- 호주군은 「2016 국방백서」에 따른 군 현대화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국 방산역량 강화를 우선과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호주방산역량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AIC 제도는 자국 방산역량을 향상시키고 CPR의 가치성 원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며 대부분의 대규모 획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획득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방산업체는 다음을 고려하여 현지기업 참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기술력 보유 현지 업체 식별]** 호주의 방위산업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어서, 성공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업을 식별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한화디펜스가 참여 중인 Land 400 Phase 3 사업과 같이 현지 업체의 참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로드쇼 형태의 기업 선별 과정을 국방부 차원에서 주도하기도 하지만, 협력 기회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 규모가 크기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체 전략 수립을 요구한다.

  - Land 400 Phase 3 사례에서 한화디펜스는 호주업체참여를 위한 전담 팀을 현지에서 구성하고 사업 개시 전부터 호주 업체와 연락하며 협력기회를 모색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업체 자체 AIC 포털을 구축하여 협력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현지 업체참여를 유도했다.

## 4. WT 전략 (약점-위협 전략)

### 가. 외교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정부 협력 채널 다각화

- 호주는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획득 사업 선정 시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 외교관계에 따라 주요 우호국가간 상호운용성을 고려하게 되고, 도입 후 유지보수 비용에도 연관이 있다. 호주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달 제도를 갖고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것, 즉 수치로 표현되거나 표면적인 것만 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 사업으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도 전체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 따라서 G2G간의 관계 변화를 대비하여 진입 희망 업체도 대정부 협력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획득 담당 기관인 국방부 방위사업청 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을 계획할 때 의견을 내어줄 수 있는 주(state)정부, 투자의견을 내는 재무부 등 가능한 소통 채널을 다각화 하는 것이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제4장

정책제안 및 시사점

# 4

제

장

## 정책제안 및 시사점

제 1 절 정책제안 1

---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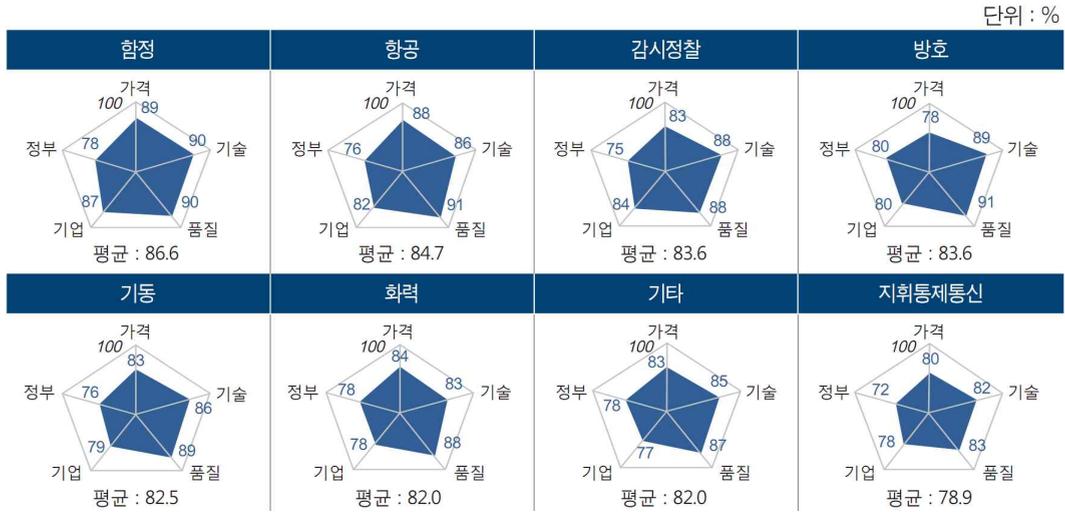
## 1. Top-Down 방식의 중점 수출분야 선정 및 수출 연계방안 수립

### 가. Top-Down 수출 연계 방안 필요성

- ▣ 호주와 같이 개방적인 방산시장을 보유한 국가의 경우 경쟁 강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방산업체를 상대로 기술력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상호운용성이 검증된 분야 식별이 필요하다.
- ▣ 특히 호주 시장에 수출로 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한 가지 분야를 선정하여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 예정 소요나 급변하는 세계 국방기술 동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 따라서, 호주 및 기타 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점 수출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나. 중점 수출 분야 선정 방안

- ▣ [주요 수출국의 중장기 획득방안 검토] 각 국가가 발행하는 중장기 획득 계획은 수출 희망 국에게는 효과적인 이정표로 작용한다. 호주는 「호주국방백서 2016」를 바탕으로 2020 전력구조계획(2020 Force Structure Plan) 및 「2020 국방전략최신화(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등을 통해 향후 획득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수출과 연계하여 향후 획득 시기와 해당 기술에 대한 개발 소요 시간을 매칭하여 중점 수출 분야를 선정하면 수출 연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 [국내 우수 기술력 분야 분석]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수출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대체품 대비 어떻게 성능을 차별화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국내 무기체계 생산시에 해외 기술에 의존하였으나, 최근 일부 기술 분야는 선진국과 대비하여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으로 기술력이 발달하였다. 기품원에서 발간 중인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바탕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무기체계 분야 및 해당 무기체계 분야 내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구성품·부품 분야를 선정하여 수출과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4-1] 국내 무기체계별 기술력 수준

## 2. 방산수출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제협력 업무절차 수립

### 가. 국제협력 업무 절차의 필요성

- 호주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입찰 제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외교관계는 사업자 선정 시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호주 미래잠수함 사업이 프랑스 기업으로 낙찰된 것은 프랑스 정부 고위관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공관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호주 방산 진출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장관 및 정치인들에게 어필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현재 한국과 호주는 방산공동위, 기술협력회의, 군수협력회의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이 아닌 필요에 따라 열리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또한, 정부 기관간의 실무 협의 위주이다 보니, 실제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기가 어려운 실태이다,

### 나. 절차 수립 방안

- [정부-업체 연락반 구성]** 수출 현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 담당 기관과 관련 업체들 간의 연락반을 구성하여 현안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 및 공동위원회 안건 발굴을 수행하고 바이어매칭을 지원한다.

## 제 2 절 시사점 및 결론

-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의 일원으로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영향을 받고 있음. 역내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나,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아 무역분쟁 발생 리스크 존재
  - 향후 10년간 5,750억 호주달러 규모의 국방지출 및 GDP내 국방비 비중 2% 이상 유지 예정
- 군사외교 정책기조, 최근 5년간 수입 동향 그리고 향후 10년간 획득사업 중 공급자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 분석 결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진출 가능한 분야로 정보통신체계, EO/IR 및 무인기 분야를 식별했다.

  - LWIR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조준 및 야간투시경, AI 관련 연구개발, Cloud Computing을 활용한 군 ICT 인프라 구축,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중소벤처기업 참여가능 소요 식별
- 호주 방산시장의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장진입 전략으로는 ①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기업 인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활용, ②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한 진출, ③기술력 우위 분야 중심의 진출, ④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 후 서구권 국가 수출 교두보 마련, ⑤현지기업 참여를 고려한 진출 전략 수립, ⑥외교상황 변화에 대비한 대정부 협력 채널 다각화 등이 있다.
- 호주와 같이 경쟁강도가 높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국 중장기 획득방안 검토 및 국내 우수 기술력 분야 분석 등을 통한 Top-Down 방식의 중점 수출 분야 선정, 체계적인 국제협력 업무절차 수립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진출전략 제언

- ① 한-호주간 활발한 교류 및 호주내 자국기업 보호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현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② 향후 수요가 예상되고(통신체계, 센서, 무인기 분야 등) 호주 방산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기술력 우위에 있는 분야 식별 필요
- ③ 정부간 소통 채널을 활용한 바이어매칭을 병행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부 록

1. 향후 획득 계획

---

2. 주요 현지 방산기업

---

## # 부록 1. 향후 획득 계획

Program	Type	Stage	Comments
LAND 400 Phase 3	Infantry fighting vehicles and manoeuvre support vehicles	Under development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shortlisted Hanwha Defense and Rheinmetall Defense for the Department of Defense's LAND 400 Phase 3 programme.
Project LAND 121 Phase 4	Lightweight and light vehicles	Planned	To facilitate opera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disaster management and military operations in low threat environment under program LAND 121 Phase 3A fleet of lightweight and light vehicles will be acquired.
Project LAND 8120	Engineering Vehicle	Under development	Department of Defense has identified the need to replace a range of engineering vehicles due to operational requirements.
LAND 4503 Armed Reconnaissance Capability program	Attack Helicopters	Planned	Australian government is planning to procure up to 29 attack helicopters. These new helicopters are expected to replace its current fleet of 22 EC 665 Tiger attack helicopters.
Foreign Military Sale of M795 with insensitive munitions explosive (IMX) 101 explosive fill 155mm HE projectiles	M795 with Inensitive Munitions Explosive (IMX) 101 Explosive Fill 155mm HE projectiles	Planned	The US State Department has approved the potential Foreign Military Sale of M795s with IMX 101 Explosive Fill 155mm HE projectiles for an estimated cost of US\$148 million.
Naval shipbuilding program	Naval platforms	Under development	The government will invest AUD89 billion to develop a sustainable Australian naval shipbuilding industry.
GBU-39/B small diameter bombs increment I (SDB I)	Precision-guided glide bomb	Finalized	The US State Department approved the sale of 2,950 GBU-39/B Small Diameter Bombs and 50 guided test vehicles, alongside associated training and support.
LAND 121 Phase 3B	Trucks and Haulmark trailers	Planned	Australia plans to invest AUD3.5 billion on land vehicles to enhance the mobility of its ground forces by replacing multiple vehicle fleets, acquiring a total of 2,707 vehicles, 1,753 trailers and 3,858 modules.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IAMD) program	Short-range ground-based air defense system	Under development	A joint collaboration project with the US to develop a short-range ground-based air defense system against ballistic missile attack.
SEA 1000 Future Submarine Program	Submarines	Under development	The aim of the project is to develop an affordable and highly-advanced superior submarine. The first submarine acquired is likely to enter service in 2030.
Land 400 Phase II	AMV35 combat	Under development	BAE Systems Australia announced

Combat Reconnaissance Vehicle Program	reconnaissance vehicles		a partnership with Marand for the Royal Australian Army's Land 400 Phase II combat reconnaissance vehicle program. Under this partnership, Marand will provide cross-sector expertise and a range of engineering services for the army's AMV35 combat reconnaissance vehicles.
Destroyer, Helo Capable, Guided Missile (DDGH)	Hobart class Destroyer	Under construction	DDGH is capable of conducting an effective ASW strike.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be commissioned in late 2019.
Future Frigate Program	Frigates	Planned	In 2016, the Australian Prime Minister announced that the F 105 frigate, Type 26 Global Combat Ship, and the FREMM multipurpose frigate had been shortlisted for development. It is anticipated that in 2018 the design will be finalized, construction will begin in 2020.
JP2008 Phase 5B1 Project	Wideband Global SATCOM (WGS)	Under development	Raytheon Australia and the DoD signed a contract for Project JP2008 Phase 5B1 to provide the ADF with mobile satellite communications.
F/A-18E Super Hornets	Multi-role fighter aircraft	Finalized	The US State Department announced the sale of parts, equipment, and logistical support for the F/A-18E/F Super Hornet.
JP2072 Battlespace Communications System	Land-based tactical communication systems	Under development	The main aim of this project is to develop a Network-centric Warfare platform by 2020. The government is undertaking several joint programs to develop a battlespace communications system and tactical information exchange domain.
P-8A Poseidon	Maritime patrol aircraft	Planned	The RAF planned to acquire 15 P-8A Poseidon aircraft in two batches by 2020. It is anticipated that US\$3.6 billion will be invested.
DEF 500 Phase 1	Enhanced Land Electronic Warfare Systems	Under development	The DoD will acquire and upgrade the Australian Land Forces electronic warfare capabilities.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is scheduled for 2017–2018, and it is anticipated that full operational capability will be achieved during 2019–2020.
SEA 1397 Phase 5C	Nulka Missile Decoy Enhancements	Undertaking trials	Australia is collaborating with the US Navy for the development of next-generation Nulka products. In 2017–2018, the project will undergo its first trial with the US.

## # 부록 2. 방산기업 목록

Type of company	Company name	Country of origin	Year	Industry	Comments
Foreign (Private)	Thales	The UK	NA	Combat systems, armored vehicles	Supplies Australia's Armed forces with combat systems, land-vehicles and C4ISR systems.
Foreign (Private)	Boeing	The US	NA	Aircraft, missiles and C4ISR	Produces aircraft, missile defense systems,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systems, ground combat vehicle management systems.
Foreign (Private)	Lockheed Martin	The US	NA	Aircraft	The company secured a contract to supply 58 F-35 fighters to Australia's Armed Forces in 2014.
Foreign (Private)	Raytheon	The US	NA	Submarines combat systems	Secured a contract to supply ELCAN Specter DR 1-4x dual role weapon sight to Australia's land forces.
Domestic (Public)	Austal Ltd	Australia	NA	Naval vessels, patrol boats	The company secured a contract to replace Australia's Navy with an entire fleet over the next 25 years.
Foreign (Private)	Saab	Sweden	NA	Aircraft	Secured contract to supply eight JAS-39 Gripen Fighters in 2016.
Foreign (Private)	General Dynamics	The US	NA	Defense and space	In 2016, the company received a contract, to provide AEA-18G Electronic Warfare Range Systems and related equipment.
Foreign (Private)	Navantia	Spain	NA	Naval platforms	In 2016, the company secured a contract to construct two auxiliary oiler and replenishment (AOR) vessels.
Foreign (Private)	Airbus Group	The UK	NA	Aircraft, missiles and C4ISR	The company received a contract to provide 15 EC 135 T2+ helicopters for Australia's navy and army.
Domestic (Public)	ASC	Australia	NA	Submarines	NA

이 면은 공백임



## 참고문헌(국외)

- (1) 2018–2019 Defence Industry and Innovation Programs Annual Report,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2020)
- (2) 2020 Defence Strategic Update,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2020)
- (3) 2020 Force Structure Plan,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2020)
- (4) Capability Life Cycle Detailed Design,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2019)
- (5) Defence Procurement Policy Manual, Australian Department of Defence(2019)
- (6) Introduction to the Capability Life Cycle and Capability Management Practices,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2018)
- (7) Australia outlines progress in industry innovation, Jane's News(2020.7.9.)
- (8) Australia details long-term defence funding plans, Jane's News(2020.7.1.)
- (9) Australia reforms defence foreign investment rules, Jane's News(2020.6.5.)
- (10) Industry and science step up as keys to national security, Australian Manufacturing Forum(2020.7.13.)
- (11)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to be given greater approval powers amid increasing national security risk, ABC News(2020.6.5.)
- (12) The Australian Defense Market" – Attractiveness, Competitive Landscape and Forecast to 2025, GlobalData(2020.3)
- (13) Market Report – Australia, Jane's
- (14)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www.sipri.org](http://www.sipri.org))
- (15)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Trade registers ([www.sipri.org](http://www.sipri.org))

## 참고문헌(국내)

- (1) 2020 호주 개황, 외교부(2020)
- (2) 2018 국방과학기술조사서, 국방기술품질원(2018)
- (3)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2019)

이 면은 공백임

## 호주 방산시장 동향 조사서

A Research and Analysis on the Australian Defense Industry Market

작성			
성명	분야	전화번호	E-mail
최준화	해외시장 조사·분석	055-751-5786	jchoi@dtaq.re.kr
참여전문가	(가나다순)		
검토 및 자문			
확인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수출지원센터장	책임연구원	한승재
	수출지원2팀장	선임연구원	정유진





**호주  
방산시장  
진출전략 보고서**